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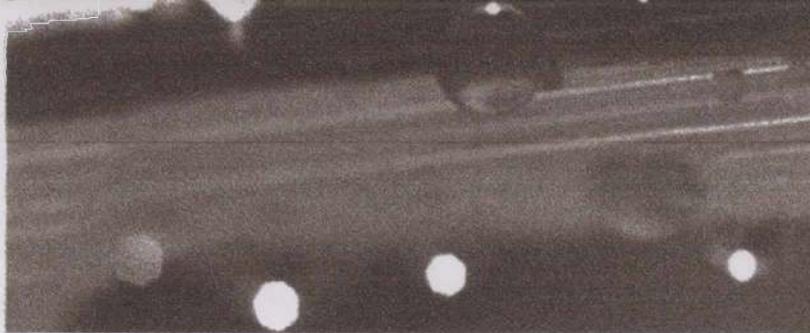
공군

www.airforce.mil.kr



2005. 6 / 제324호

생각해 봅시다 / 국적포기와 해외입양아
특별기획 테마포토 / “은빛 날개, 포연을 뚫고”
특별기고 / 다이만 부대 방문기



4	참모총장 스케치
6	공군은 지금
	생각해 봅시다
10	국적포기와 해외입양아
	특별기획 테마포토
12	"은빛 날개, 포연을 뚫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16	F-51 무스탕 정비사, 김상기 씨
	공군소식 I
19	교육사령부 즐거운 병영문화 프로그램
	공군소식 II
20	군수사령부, '금연 7·7운동' 전개
	공군소식 III
21	2005년 제1차 고등비행 수료식
	현장탐방
22	제27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본선대회
	Zoom In
25	중앙 기록보존소 통합 자료관 시스템 탐방
	대 특색기고 이동혁
28	공군 제58항공수송단(다이만 부대) 방문기
	화제의 공군인
31	여군 최초 400회 무결함 비행지원 달성
	테마가 있는 나들이
32	총무공 사적지 한산도(閑山島) 탐방기
35	6월의 공군 약사

장병문예
가슴 벅찬 T-50 비행시험 1,000회

세계의 항공무기
무인전투기 X-47 페가수스

세계의 우주력
위성항법체계

그림 이야기
사이공 최후의 날

법률상식
헌법재판에 관하여

건강 365
한밤의 불청객, 코골이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까~악! '슈렉' 이 얼장?!

문화 마당
6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마음으로 읽는 글
철부지 예찬
영화 이야기
킹덤 오브 헤븐

책으로 읽는 세상
간도에서 대마도까지

기상전망대
독자의 소리
다른 그림 찾기
보라매 단상
알립니다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7

58

61

62

63

28

32

38

48

52



마음으로 읽는 글 ~ 철부지 예찬

참모총장 스킷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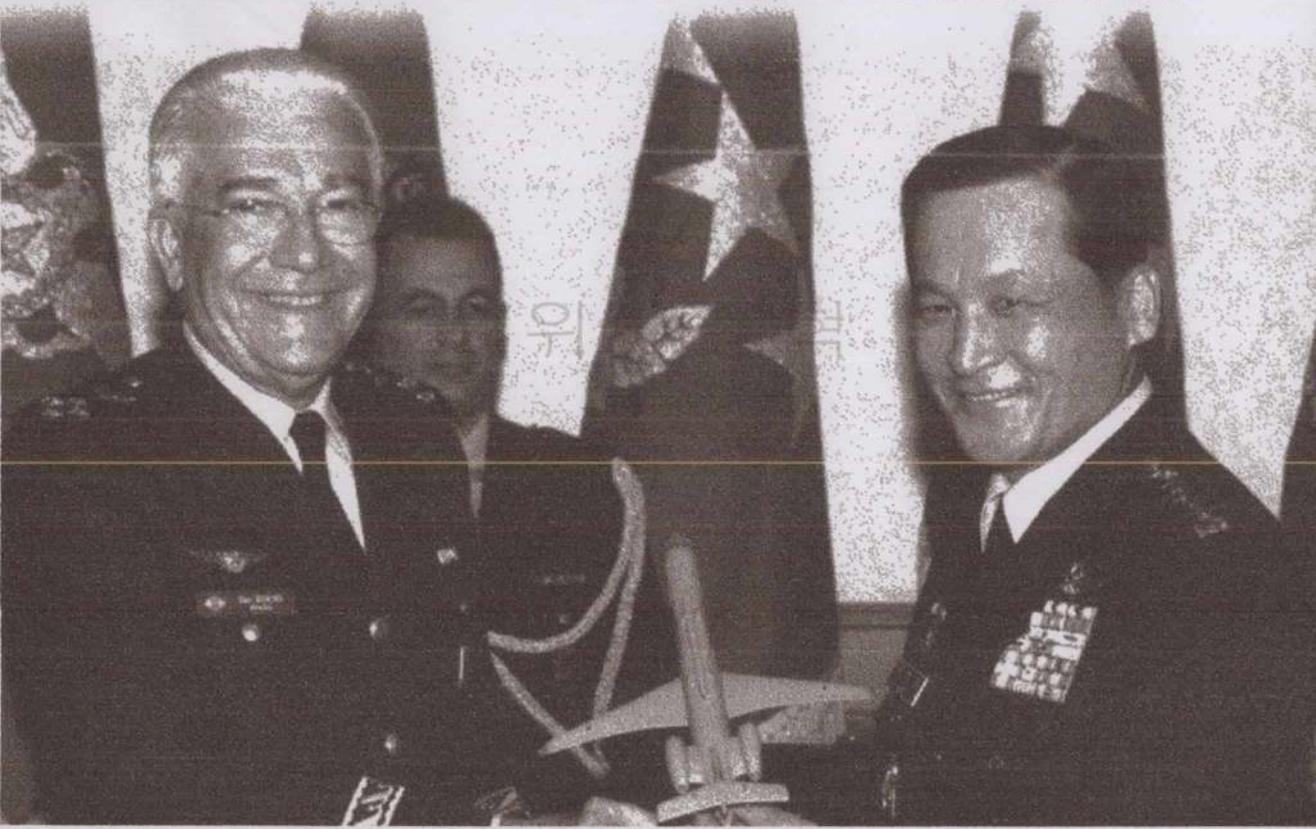


제27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참모총장은 5월 22일, 공군사관학교 제27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를 개최했다.

브라질 공군사령관 접견

참모총장은 5월 10일, 브라질 공군사령관(Luis Carlos da Silva Bueno)을 본부로 초청하여, 한·브라질 공군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05-1차 고등비행 수료식 참석

참모총장은 5월 19일, 제16전투비행단에서 거행된 '05-1차 고등비행 수료식을 주관했다.

주한 무관단 초청행사

참모총장은 5월 20일,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20개국 28명의 주한 외국 무관단을 공군본부로 초청, 한국 공군에 대한 이해 및 실질적인 군사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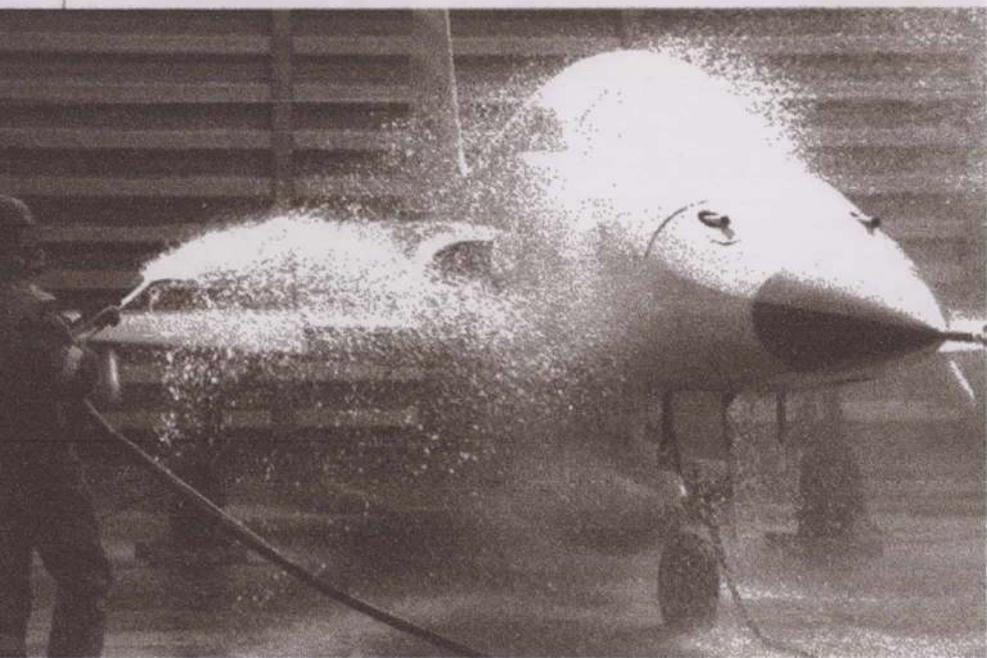
1 제8전투비행단은 최근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량 환자 구호훈련을 실시했다.



2 '3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한 제3훈련비행단



제16전투비행단은 5월 6일 비행무사고 원년 달성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제16전투비행단은 최근 화학전 방호훈련을 실시했다.

대우



5월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한강에서 수상 구조 시범을 펼친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6 공군 군악대는 5월 19일, 울릉군
 도동 울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주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사랑 연주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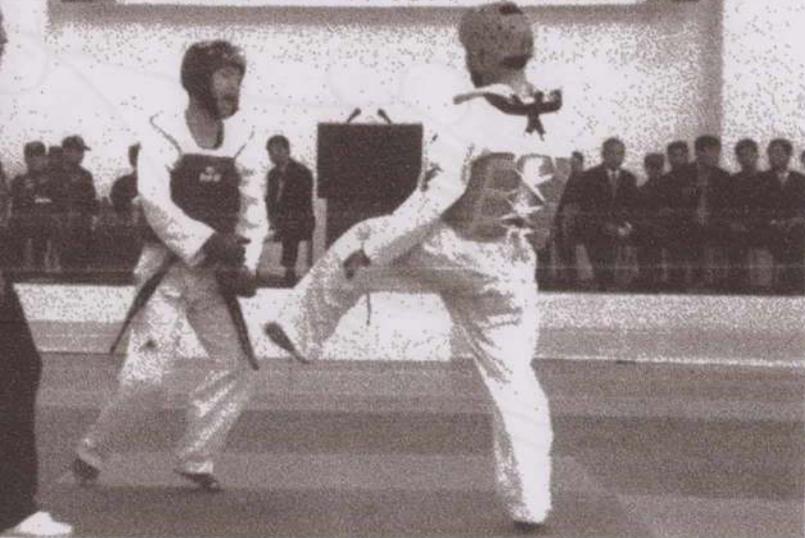
7 제30방공관제단 예하 제2방공
 경보대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제1회 대성산 축제를 개최했다.



8 복지근무지원단 장병 50여 명은 5월 16일, 성년
 날을 맞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성년
 참석했다.

제12회 참모총장기 태권도 대회

일시 : '05. 5. 19 ~ 5. 20 주최 : 동군 본부 주관 : 제18전투비행단



9 제12회 공군참모총장기 태권도 대회가 5월 19일, 20일 양일간 제18전투비행단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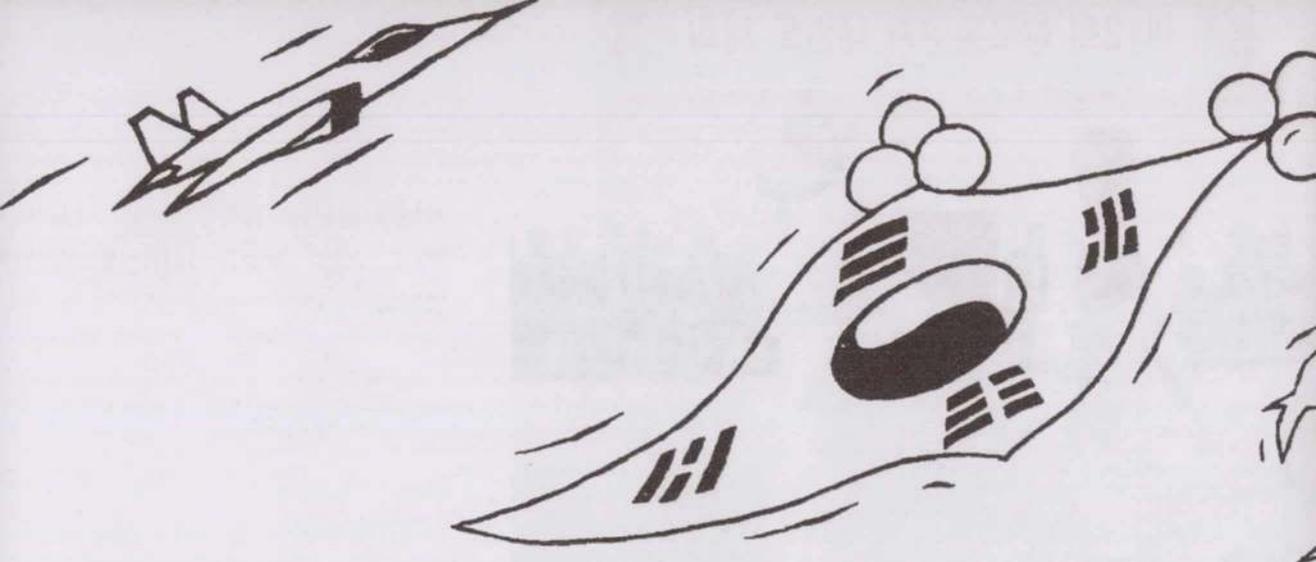


10 제11전투비행단은 5월 20일, 장애 어린이 보육시설인 '아이사랑' 원생 45명을 부대 초청, 견학 행사를 가졌다.



1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장병들은 5월 11일부터 부대 인근지역에서 대민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적포기와 해외입양아

최 근 국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포기 신고가 급증하다가 그

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는 것이 알려지자 다시 포기철회가 늘어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국가보훈처장 박 유 철

국적포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상 국적은 혈통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국적포기'는 극단적으로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

또 한편으로 모방송사에서는 해외입양아와 생모를 만나게 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하여 온 국민을 감동시키고 있으며 매년 많은 해외입양아들이 조국을 찾아 방문하고 있다.

6·25전쟁 직후 시작된 해외입양은 올해로 51주년을 맞았고 그 동안 20만여 명의 한국 아이들이 이역만리 낯선 땅에 보내졌다고 한다. 전쟁 후 한국은 88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 등을 개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지만 여전히 '고아수출국'의 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해외입양반세기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인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버린 채 국적을 포기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자신을 낳아준 조국을 찾으려 애쓰는 상황을 보면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다시금 애국선열들과 호국영령의 참뜻을 되새겨 보게 된다.

우리는 5천 년 역사 속에서 외세의 끊임없는 도전과 침략에도 민족의 독립을 지켜가며 만주 등 중국 지역까지 진출했던 기개와 용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근대사의 치욕인 36년간의 일제 강점기와 남북분단을 고착시킨 3년간의 6·25전쟁을 겪었다.

이때 우리 국민 모두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 자신과 가족을 버리고 조국독립을 위해 싸웠고 국가와 자국을 수호를 위해 재외국민은 물론 나이 어린 소년들까지 참전하여 조국을 지켜냄으로써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고난과 역경의 오천년 역사를 찬란하고 울곧게 유지해온 바탕에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고한 자존감과 함께 위국헌신 정신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애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희생 위에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려 하는 현실은 결국,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나라사랑 정신이 국민들 속에 고귀한 삶의 가치로 인식되어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제공하는 호국보훈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음이다.

호국보훈이라는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를 국민통합의 중심가치로 활용한 나라는 역사의 주역으로서 세계사의 한 축이 되었다. 그러나 보훈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나라는 역사의 뒷안길로 쓸쓸히 사라진 경우가 많다.

자긍심을 갖기 위해 조국을 찾는 해외입양아들

많은 해외입양아들이 자신을 버린 조국을 찾아오는 이유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확인하여 자긍심을 갖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던 우리의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면서 찾아와 돌아갈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길은 호국보훈을 국민 속에 뿌리내려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나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경하고 배우하는 풍토를 만들어 호국보훈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은빛 날개, 포연을 뚫고”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창설된 이래,
한국 전쟁을 시작으로 월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파병에 이르기까지
조국 수호와 국익,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전장을 누벼 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
그들의 발자취를 사진으로 담았다.

세계의 하늘을 두배는
58 항공 수송대 이 안으로
발전은 기원합니다.

2004. 12. 8

대통령 노무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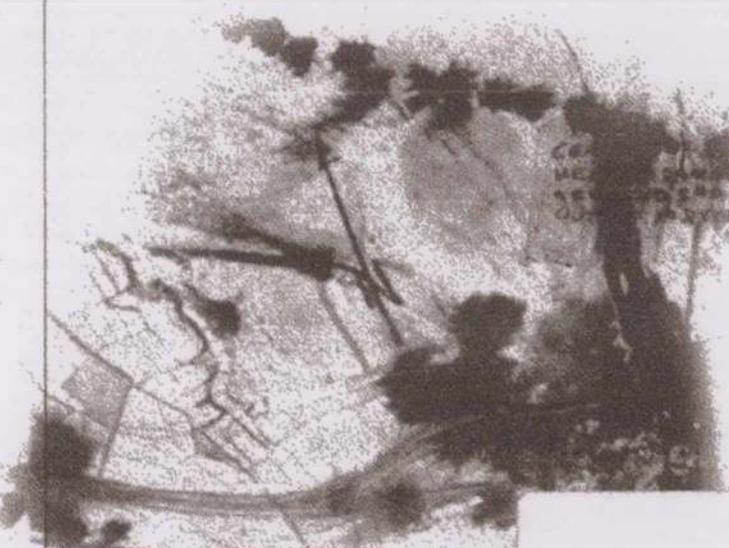


한국 전쟁

1950년 6월 25일 당시 한국 공군의 전력은 1,800여 명의 병력과 20대의 경항공기가 전부였다. 그러나 우리 조종사들은 단 1회의 훈련비행으로 F-51 전투기 10대를 주일미군으로부터 인수해오고, 인수 1개월만에 항공작전에 참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전쟁과 함께 성장한 우리 공군은 눈부신 활약을 펼치게 된다.



1950년 7월 2일 주일 미군에서 F-51 무스탕기 10대를 인수하여 한국으로 이동하는 우리 조종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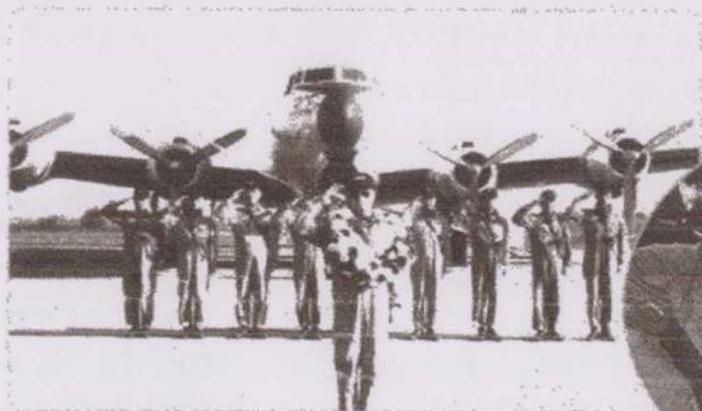
한국 공군 최초의 항공차단 작전인 '승호리 철교폭파 작전' (1952년 1월 15일)



1950년 10월 1일 전투출격을 개시하여 1952년 1월 11일 한국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을 수립한 김두만 소령

월남 파병

월남의 평화수호를 위해 창설된 은마부대는 당시 보유전력인 C-46 및 C-54 항공기로 전술공중지원, 기상지원, 공수활동, 난민구호, 의료지원 등의 활동을 펼쳤다.



수송기 내 간호활동



1966년 9월 19일 C-54 수송기의 월남 취항에 앞서 조종사들이 참모총장에게 취항 신고를 하고 있다.

걸프전 파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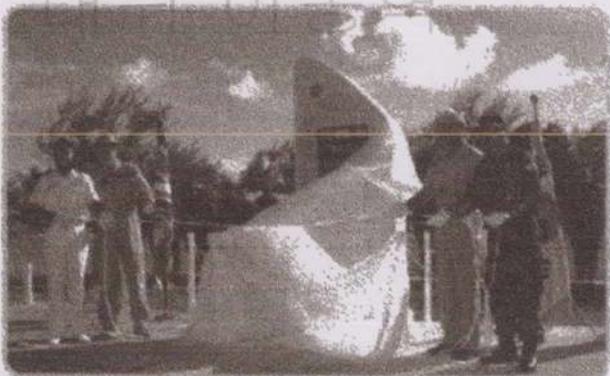


제56공수비행단(비마부대 : 1991. 2~1991. 4)
 걸프전 발발 후 국내외의 높은 관심 속에서 5대의 C-130 전력이 다국적군으로 참전하여 전쟁 지역 내의 전투병력 및 물자공수, 환자공수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파병장병 귀국 환영식

제57공수비행단(청마부대 : 2001. 12~2003. 12)

미 본토 공중테러 발생에 따른 참전으로, 인도양 최전방 전략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병력 및 물자 공수, 환자공수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기간 중 2003. 5. 2. '해외 작전 무사고 비행 2,000시간' 기록을 수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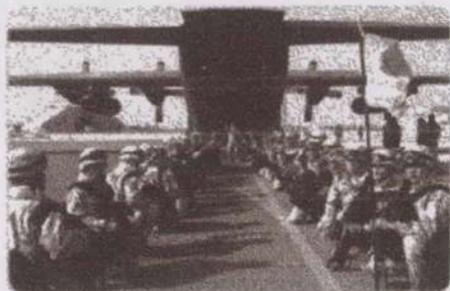
참전비 제막

테러와의
 전쟁지원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에 대한 인원 및 물자 재보급, 환자공수, 자국민 보호 등을 임무로 쿠웨이트의 알리 알 셀렘 공군 기지에 주둔. 2004. 12. 29 '100회 출격 기록' 수립. 2005. 4. 24 '전투임무수행 1,000시간 기록' 을 수립했다.



세끼리 하늘을 수비는
소상공수들만이 아니라
발전은 기원합니다.
2004. 12. 8
대통령 노무현



다이만 수송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자이툰 장병들



작전명 「동방작전」.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기 위해 공군 수송기를 탑승한 노무현 대통령이 수송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2005. 4. 24 이라크 평화재건 공수 1,000시간 비행기록을 달성한 공군 다이만 부대원들과 미국, 일본 등 동맹국군 지휘관들이 기록 수립을 축하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다이만부대 1,000시간 기록수립
ROKAF 1,000 Hours for OIF





F-51 무스탕 정비사, 김상기 씨

F-51 무스탕, 한국 전쟁 승리의 숨은 공신

한국 전쟁 발발 55주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사선을 넘나들던 공군. 그 가운데에는 F-51 무스탕이 있었다. 우리 공군이 가진 최초의 전투기 F-51 무스탕. 무스탕이야말로 6·25전쟁을 위해 피땀 흘린 모든 공군 장병과 더불어 한국 전쟁 승리에 기여한 숨은 공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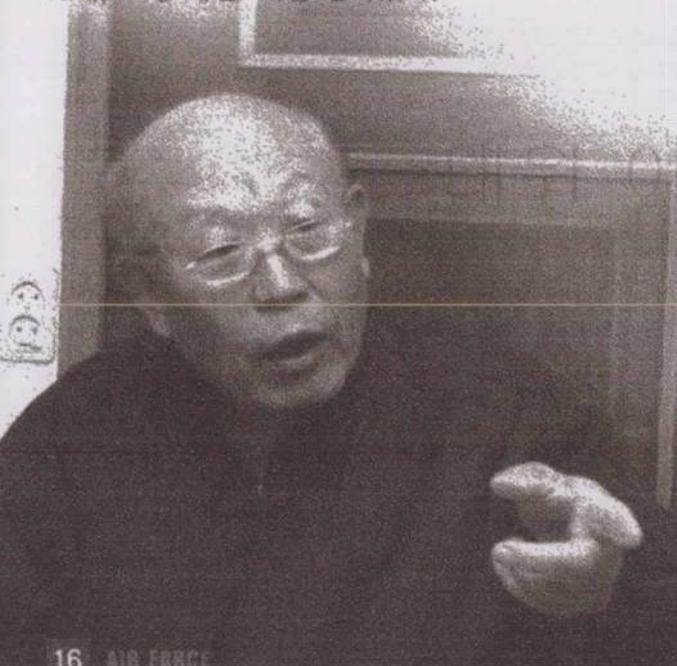
한국 전쟁 당시 F-51 조종사의 훈련을 담당했던 사천 제1훈련비행단에서 무스탕의 정비를 맡아 한국 공군의 전쟁 수행에 일조한 김상기(병7기, 75세, 소령 예편) 씨를 만났다.

무스탕, '최고'를 정비하다!

5월의 어느 날. 물어 물어 찾아간 수원의 한 주택가. 유난히 한국 전쟁 때 함께했던 전우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수원에서 김상기 씨는 기자가 채 자리에 앉기도 전에 흑백 사진 한 장을 내놓았다. 기자를 위해 당시 자료를 찾던 중 발견했다는. 죽어선 무스탕 앞에서 동료 정비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가 내놓은 손때 묻은 사진에서 당시의 기억이 고스란히 배어난다.

“무스탕… 최고였죠. 내 자식입니다. 무스탕을 처음 봤을 때는 마치 갓 태어난 자식님을 처음 마주하듯 어찌나 가슴이 벅차 오르던지. 전쟁 기간 동안 무스탕을 정비했던 순간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피난을 가던 중 우연히 신문에 난 공고를 보고 공군에 자원했다는 김상기 씨는 1950년 이등병으로 입대. 사천에서 정비사 특기 교육을 받은 후 한국 전쟁 중 무스탕 정비를 담당했다. 전쟁 출전을 앞둔 조종사들의 훈련이 이루어지던 제1훈련비행단. 정비사도 조종사도 모두가 조금이라도 빨리 무스탕 조종을 해서 조국을 위해 전장에 나서리라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국에서 지원한 무스탕은 구세주였습니다. 탕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공군작전이 시작되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국 전쟁 당시 개전 후 사흘간의 작전은 우리의 '정신력'만으로 무장한 싸움이었다. 이렇게 전투기 한 대 없었던 우리는 10대의 T-6 항공기 각각 국산 포탄 8~10개와 수류탄을 싣고 올라 후방석 관측사가 폭탄을 손에 들고 눈으로 어림하여 적의 전차와 차량에 투하하며 적을 하였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미공군이 지 F-51 무스탕은 북한군이 보유한 야크 전투기(AK-9)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춘 공군의 다크호스' 였던 셈이다.

공군, 그리고 무스탕의 활약

50년 7월 3일, F-51 전투기 4대가 수원 방로 남하하는 적군의 전차부대를 공격함으로써 한국 역사상 최초로 우리 공군의 전투기 출격 시작됐으며, 이후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 평양 대폭격 작전을 성공시키는 등 한국 공군의 힘찬 비상이 시작되었다.

런비행단이었던 사천에서는 전쟁의 함은 덜했지만 그에 못지 않은 긴장감을 호르고 있었다. 부족한 조종사의 충원을 위해 매일 수십 번씩 비행훈련이 계속되었기 때문. 훈련 중인 조종사에

반복해야 했다.

“착륙과 동시에 정비를 시작하고, 정비가 끝나면 바로 다른 조종사가 다시 비행을 나가고... 전투기 한 대가 하루에 적어도 서너 번은 비행을 해야만 했어요.”

프로펠러를 손으로 직접 돌려야 시동이 잘 걸리는 F-51 전투기의 특성상 정비사들의 어깨는 남아날 날이 없었다.

“다치기도 많이 다쳤죠. 조종사도 항공기도... 그때는 워낙 빨리, 그것도 완벽한 조종사를 키워내야 했으니까... 조종 훈련하다 산에 부딪히기도 하고, 바퀴가 한쪽만 나와서 동체 착륙을 한 적도 많고. 그럴 때는 금쪽 같은 내 자식 많이 다쳤을 까봐 마음속으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노력의 힘일까? 약 3년간의 전쟁기간 중 우리 공군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전초와 비교해 병력은 전후 약 6배 증가했고, 출격 조종사도 115명 중 39명이 100회 이상의 출격 기록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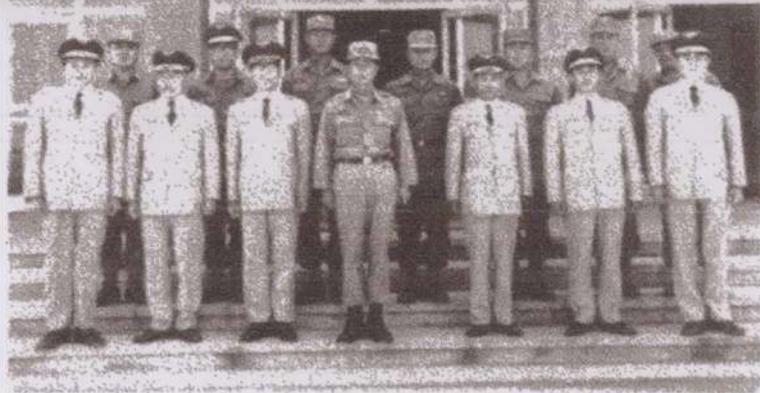
스탕 133대가 도입되면서 전투력은 눈에 띄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 전투 중 69대, 훈련 중 48대 등 총 117대의 전투기가 파괴되었으며, 조종사 39명(전투 중 22명, 훈련 중 17명)이 순직하였다.

“동기생 중에 조종사가 7명이었는데 4명이 순직했어요. 훈련하던 조종사들도 많이 갔지. 매일 내가 정비한 비행기가 뜰 때마다 떨어지지 않고 조종사도 내 자식도 부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의 말에서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영원히 기억될 ‘무스탕’ 정신

정점 다음엔 반드시 내리막이 있기 마련. 한국 전쟁에서의 화려한 활약을 뒤로하고, 1955년 한국 공군 최초의 제트기인 F-86F에 무스탕은 최고의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그때의 느낌은 어땠을까. “마치 내 몸의 한 부분을 떼어내듯 많이 아팠습니다. 정비사와 항공기는 일심동체니까요.”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여쭙어보았다. 무스탕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까. 한참만에 “그저 성실해야지요. 내가 맡은 비행기는 내 자식이고, 분신이고, 항상 함께한다는



그런 생각이면 절대 실수란 있을 수 없지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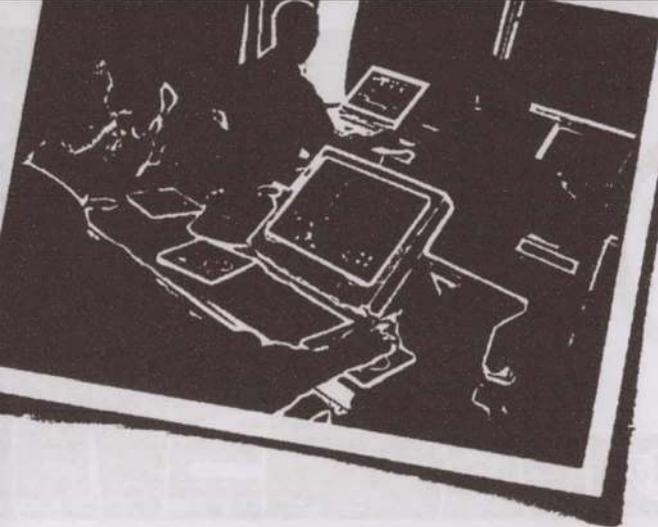
한국 공군 초창기 무스탕 정비사인 김상기 씨와의 만남은 마치 노장의 뒷모습을 본 듯 아련한 아쉬움과 여운을 남겼다. 한국 공군이 지금과 같은 최첨단의 모습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김상기 씨와 같이 드러나진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온 수많은 공군 장병들의 힘이 클 것이다.

무스탕도, 그와 함께했던 정비사도, 그리고 조종사도 이제 한국 공군의 역사 속 한 장면으로만 남아 있지만, 그들의 피와 땀은 앞으로도 영원히 후배 공군 장병들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일 것이다. ⊕

객원기자 이지연

대위 이동혁





“ 병영이
즐 ~ 거 워 집 니 다 . ”

- 교육사령부 즐거운 병영문화 프로그램 -

군대에서 PC 게임을 즐기고, 취침 소등 후에도 라디오를 듣는다. 안 들키면 가능한 일이라고? 여기 대놓고, 그것도 부대에서 권장하여 병영생활을 사회에서 학교 다니듯 즐겁게 하는 곳이 있다.

가족 같은 교육환경, 교육사령부 정보통신학교

교육사령부 정보통신학교는 최근 입교한 교육생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육환경 속에서 특기교육에 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화제다.

정보통신학교는 기본군사훈련을 마치고 입교한 교육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 병영생활 명랑화 방안을 다방면으로 연구, 내무생활 등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심야 음악 방송”과 “동기생의 날”은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치활동으로 시행되는 심야 음악 방송

“심야 음악 방송”은 매일 취침 소등 후 약 30분간 진행되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교육생들의 자치 활동으로 시행되는 것이 이채롭다. 교육생들 중 희망자를 진행요원으로 선발하여, 직접 교육생들의 따뜻한 사연이나 신청곡을 받아 취침

시간대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 함께 놀자, “동기생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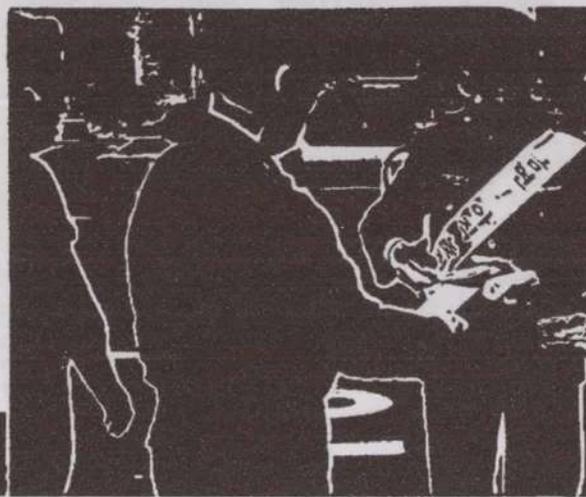
“동기생의 날”은 매월 4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행사로, 이날만큼은 교육생들이 모든 부담을 덜고 훈육관 및 조교들과 한 마음이 되어 PC 게임 대회, 체육대회, 생일자 파티, 다과회, 영화 상영,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단합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학교에서는 지난 3월에도 ‘창의적 강의기법 워크숍’을 개최하여 외부강의 기법을 연구하고, 군에 적용 가능한 강의 기법을 발굴하여 군내 교육의 경직된 강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등 신세대 장병들이 특기교육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최근에는 그 성과로 자칫 고압적인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군의 딱딱한 언어를 개선, 경어를 사용하는 등 교육생에게 보다 친근한 교관, 가족 같은 훈육관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요즘 군대. 점점 즐겁고 재미나게 변화하고 있다. ⊕

원고정리 편 집 실

담배는 이제



군수사령부, '금연 7·7운동' 전개

'군에서 배운 담배' 이젠 옛말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에서 제대하면서 반드시 배워 나왔던 담배! 한때는 군에 가서 담배를 배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변했다. 이젠 군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군이 팔 걷어붙이고 장병들의 금연에 앞장서기 시작한 것.

군수사령부는 올해부터 장병들의 건강한 병영 생활 유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명 '금연 7·7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금연 7·7운동'이란, 부대 장병 및 군무원 흡연자 중 70%가 금연 운동에 동참하고, 참여자 중 70%가 금연 성공을 목표로 하는 금연 프로그램을 말한다.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으로 금연 분위기 조성

이번 금연 운동은 정부 차원의 금연 정책에 동참하고 군내 금연 운동 확산을 통해 장병 흡연을 감소 및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 것. 이번 금연 운동은 분기별로 금연 목표를 세워 연간 계획에 따라 꾸준히 실시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부대 영관급 장교 이상은 100% 빠짐없이 금연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상급자들이 솔선수범의 태도를 보이도록 하였다. 또, 금연 운

동 참가자들은 금연을 다짐하는 '금연결심서'를 쓴 후 자신의 금연 의지를 주위 동료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금연배지를 부착함으로써 쉽게 담배를 필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흡연을 치료의 측면에서 접근한 금연침 시술 등의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 금연율 및 금연자 최고 향상 부대는 금연 활동 우수 부대로 선발하여 포상하고, 금연 성공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더하여 매 점심시간에는 부대원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금연 홍보 도우미'들이 금연 관련 팸플릿을 나눠주며 금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홍보·확산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영남대학교 예방의학교실 황태운 교수를 초빙, '흡연의 폐해'라는 주제로 흡연자 및 금연 7·7운동 참가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 강연을 가지기도 했다.

6년째 담배를 피워오다 이번에 금연 운동에 참가한 이승민 상병은 "개인적으로 몇 번 금연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다"며 "금연이라는게 혼자만의 의지로는 정말 힘든데, 부대 차원에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주니 이번이야말로 금연에 성공할 것 같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

필승! 새내기 조종사 신고합니다!

- 2005년 제1차 고등비행 수료식 -

빨간마후라의 물결!

5월 19일 제16전투비행단. 난데없이 연병장 전체에 빨간 물결이다. 한두 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명. 게다가 조종복도 아닌 정복에 빨간마후라를 메고 있다. 웬지 대단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 듯한데 대체 무슨 일일까?

바로 조종사들에게는 성년식과 같은, 정식으로 조종사가 되었음을 알리는 행사인 2005년 제1차 고등비행 수료식이 열린 것.

이날 수료식을 통해 배출된 새내기 조종사는 모두 40명. 이들은 2004년 9월 초등비행 교육과정과 중등비행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고등비행 교육에 입과 한 이래, 8개월 동안 영공방위의 첨병인 조종사로서 요구되는 각종 비행기술과 전술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고난도의 비행교육을 이수해왔다.

2년여에 걸친 기나긴 비행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새내기 조종사들이 수료식에서 받은 것은 전투조종사의 상징인 은빛 조종 흉장과 빨간마후라.

이제 새내기 조종사들은 진정한 공군의 정예 조종사로 다시 태어나 각급 부대에 배치되어 지속적인 실전훈련을 통해 전투기, 수송기, 헬기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게 된다.

이날 수료식에서 공군참모총장은 “장기간의 고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웅비의 나래를 펴게 될 신입 조종사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고 치하하고, “현대전의 핵심전력으로 미래 우리 공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조종사로 성장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색 보라매 가족 탄생!

한편, 이번 수료식에서는 이색 보라매 가족이 탄생하여 화제가 되었는데,

정비사-조종사 부자 탄생

빨간마후라를 달게 된 신재현(24, 공사51기) 중위의 아버지는 30년이 넘도록 정비사의 길을 걸어온 신인균(50, 준사관58차) 준위. 신 중위는 제16전투비행단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매일 푸른 창공의 전투기를 보며 자랐다. 어릴 때부터 당연히 꿈은 파일럿. 마침내 꿈은 이루어졌다.

공군 조종사-해병대 군악대원 남매 탄생

또 이번 수료식에서는 홍연수(25, 사후110기) 중위 남매가 눈길을 끌었다. 홍 중위의 여동생인 홍소희(22, 부사관283기) 하사는 음대 재학 중 해병대에 지원하여 최초의 해병대 여군 부사관으로 군악대에서 활동 중이다. 하늘에서 나라를 지키는 오빠와 그런 오빠를 격려하며 군악대에서 군가를 연주하는 동생. 생각만 해도 멋지다.

2005년 처음으로 빨간마후라 메게 된 40명의 새내기 조종사.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



원고정리 편집실

나래를 펼친 하늘색 꿈

- 제27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본선대회 -

얼마 전 개봉했던 영화 『에비에이터(The Aviator)』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화 속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멋진 비행을 하는 상상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거대한 엔진을 장착한 비행기가 아슬아슬하게 땅을 박차고 올라가 하늘로 유유히 날아오르는 모습이란... 눈앞이 아찔할 만큼 긴박한 순간도 있었지만, 이내 구름 위를 사뿐히 지나며 자유롭게 하늘을 누비는 비행기 조종사의 모습은 세상을 다 가진 마냥 아름답게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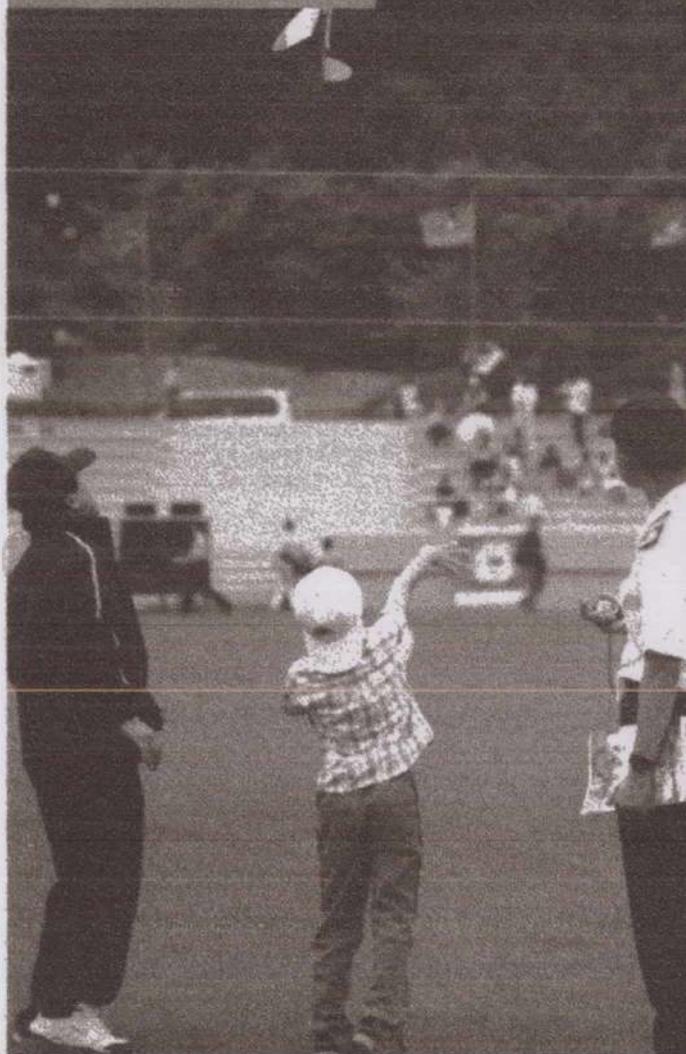
이런 비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제27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본선대회 및 제5회 비행시뮬레이션 대회'가 더욱 뜻깊게 다가왔으리라. 그럼 온 국민의 성원 속에 개최된 항공축제의 열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더 높이! 더 멀리! - 모형항공기 대회

1979년 처음 개최된 이래 명실상부한 공군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모형항공기 대회가 벌써 27회를 맞이 하였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뿐만 아니라 관람객 모두가 즐기는 새로운 축제의 지평을 연 '모형항공기 대회'. 드디어 전국 각지에서 치열한 예선을 거쳐 올라온 선수들이 이곳, 청주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로 모여들었다. 실력을 인정받은 최우수 선수들만 모아 놓은 본선대회인 만큼 예선대회보다 훨씬 고조된 분위기였다. 본선대회에서는 예선에서의 고무동력

기, 글라이더 외에도 유·무선 조종 경기가 진행되어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졌다. 하늘에서의 축제를 시샘하는 빗방울에 잠깐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선수들의 열기를 막을 수는 없는 법. 다시 개인 경기장의 푸른

모형항공기 대회 본선 경기



풀밭 상공으로 힘차게 날아오른 모형항공기는 더 높이 더 멀리 점이 되어 사라져 갔다.

온라인에서도 비행을 - 비행시뮬레이션 대회

오늘의 또 다른 경기인 '제5회 비행시뮬레이션 대회'는 공사생도 및 일반인들의 전폭적인 호응과 더불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비행시뮬레



비행시뮬레이션을 체험하고 있는 기자

이션'이란 컴퓨터를 이용해 비행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실제 비행과 거의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공군참모총장의 시범비행으로 시작된 경기는 총 5종목으로 F-51기의 1:1전투, F-15기의 2:2 치열한 공대공 전투를 비롯하여 F-16기로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공대지 공격, 항공기를 안전하게 지상에 착륙시키는 공군 1호기 착륙, 초보자들을 위한 공중 레이싱 기록경기, 비행을 직접 설계·이륙시키는 비행기 설계 종목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 경기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다름 아닌 비행시뮬레이션 동호회원들의 눈부신 활약!

한 동호회장의 설명에 힘입어 기자도 컴퓨터 앞에 앉아 보았으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조종 스틱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각종 조종

장치와 명령 부호를 보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데,

갑자기 나타나는 적기의 공격까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다.

한편, 모두가 손에 땀을 쥐며 초조하게 모니터를 지켜보는 가운데, 승리의 영예를 얻은 팀에서는 환호로 기쁨을 알렸다.

나도 파일럿! - 조종사 체험 코너

미래의 조종사들은 다 여기로 모여라~! 이번에 신설된 '조종사 체험 코너'는 파일럿을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조종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도록 구성한 색다른 코너였다. 시력 검사에서부터 시작하여 각종 검사 기기를 통한 약력측정, 배근력측정, 전신반응측정 등의 체력 검사를 거친 후 G-Force 체험 장비 탑승까지 마치면 오늘의 체험 완료! 마지막으로 조종복을 입고 기념촬영 한 사진이 인쇄된 수료 카드를 받으면 아주 쉽~게 조종사로 거듭나는 것이었다.

마치 진짜 조종사가 된 마냥 진지하게 체험에 임하는 어린이들의 틈에 끼어 '조종사 되기 작전'에 참가한 기자.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며



블랙이글 곡예비행을 보고있는 어린이들



조종사 체험 코너

을 뻔했다. 이 체험 장비는 조종사들이 비행 중에 받는 압력을 견디는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실제 조종사들이 훈련하는 것보다 압력을 1/3 정도로 약화시켜서 제작했다고 한다.

‘역시 조종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조종사들의 인내력과 정신력에 다시 한 번 감탄을 하며 조금은 아찔했던(?) 조종사 체험을 무사히 마쳤다.

본 경기만큼 재밌다! - 다채로운 볼거리

경기 시작 전 군악대와 의장대의 공연, 모형로켓 발사, 로봇버드 비행, 스카이다이빙 시범, 블랙이글 에어쇼 등의 시범 행사는 본 경기만큼이나 관람객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다는 ‘로봇버드 비행’, 새처럼 파닥파닥 날갯짓을 하며 날아다니던 로봇이 마치 보라매가 주인의 팔에 내려앉듯 사뿐히 착지를 하여 많은 관람객들의 갈채를 받았다. 더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오색 띠를 수놓으며 가뿐하게 착륙한 스카이다이버들과 현란한 곡예비행을 선보인 블랙이글은 관객들의 끊임없는 탄성과 박수갈채를 자아내었다.

대회장 한편에서는 ‘종이비행기 접어 날리기’ 코너를 비롯하여 공군 기상대체험(이곳에서 기자는 서툴지만 손수 일기도를 그려볼 수 있었다), 공군 운용 항공기, 로켓 모형, 무인헬기 등의 각종 장비 전시가 진행되어 나들이 나온 이들의 발걸음을 쉴 새 없이 만들었다.

또한 공군 군악대와 공군 사관학교 동아리들의 멋진 공연은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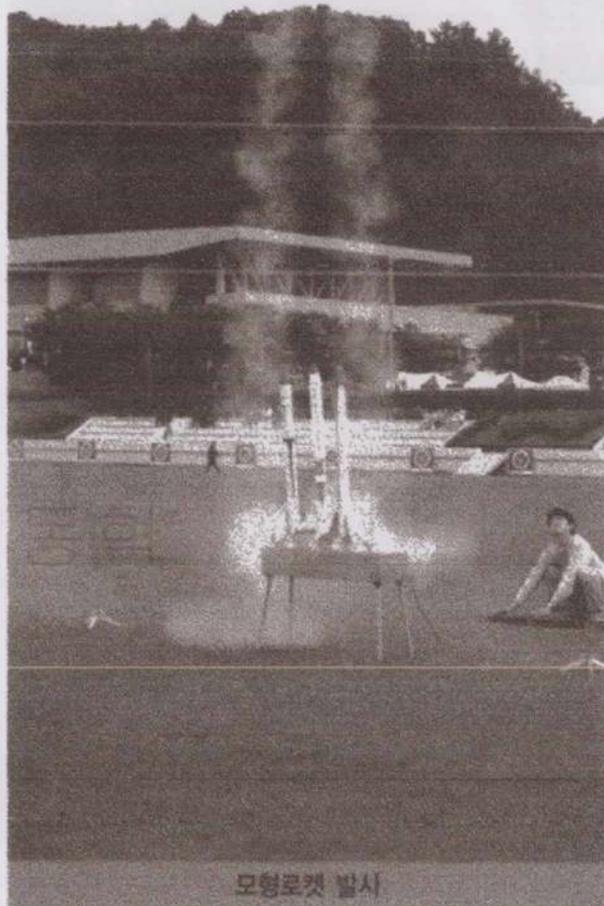
‘제27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본선대회 및 제5회 비행시물레이션 대회’는 공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전 국민의 행사였다. 오늘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과 가족들 모두 마음속에 하늘을 한 가득

룩 ‘에비에이터’처럼 멋진 비행을 직접 하진 못했지만, 그보다 더 큰 꿈을 그리며 하늘을 우러러본, 5월의 따스한 날씨만큼이나 기분 좋은 하루였다. ④

객원기자 백예니



종이비행기 접어 날리기



모형로켓 발사



“클릭 한번으로 만나는 반세기 공군역사”

- 중앙 기록보존소 통합 자료관 시스템 탐방 -

전산화 작업이 진행 중인 서

그렇게 찾아야하는 5년 전 문서. 찾으려 들
어간 문서보관소엔 빛바랜 문서철이 책
장 가득 쌓여 있다. 저 많은 서류 중 필요한 자료
를 어떻게 찾아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먼지
를 뒤집어쓰며 한참을 뒤적임 끝에 드디어 필요
한 자료를 찾았지만, 이미 시간은 까마득히 흘러
가 버렸다.

하지만 공군 장병이라면 더 이상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4월 4일 공군 중앙 기록
보존소의 '통합 자료관 시스템'이 정식으로 가동
되면서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겪어야만 했던
번거로움과 시간낭비가 사라졌다. 이제는 책상
에 앉아 컴퓨터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는 것으로
필요한 자료를 모두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통합 자료관 시스템'

최근 모 일간지에서 몇 일간 공무원과 대기업
사원들이 직장을 바꿔 출근하는 체험을 마련했
을 때, 대기업에 출근한 공무원들이 가장 인상

깊게 여겼던 것은 사무실에 철지난 문서를 보관
한 철제 캐비닛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공공
기관에서는 지나간 문서를 철한 자료들로 가득
찬 철제 캐비닛이 벽 한 면을 온통 차지하고 있
는 것에 반해, 민간 기업체에서는 모든 문서를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21세기 정보화 사회는 모든 기록의 생
성, 활용, 보존, 폐기가 온라인상에서 관리되는
전자 자료 관리 시스템을 일반화시켰다. 이에 따
라 공군 중앙 기록보존소는 전국 비행단에 '통합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 지난 4월 4일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 이러한 '통합 자료관 시스템'
의 구축과 운영은 전군에서 공군이 최초로 시행
한 것이다.

'통합 자료관 시스템'은 현재 군에서 사용 중
인 '국방 통합 전자 결재체계'와 전자 사고(史庫)
라 할 수 있는 '기록물 전문 관리 시스템'에서 생
산된 각종 공문서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면, 사진, 시청각 기록물에 이르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앞으로 모든 공군 부대는 생산 후 2년이 경과한 공문서를 통합 자료관 시스템을 통해 자동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통합 자료관 시스템에 등록된 공문서는 최소 7년 이상 열람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 보존 및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보다 쉽게! 보다 편리하게!

통합 자료관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가장 좋아진 점으로 제일 먼저 편리함을 들 수 있다. 행정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서처리에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단축됐다.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역 후 본인이나 자녀의 자격 기록부를 확인하는 등의 개인 용무를 처리할 때도 그 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해졌다.

또, 등록된 자료를 최소 7년 이상 열람할 수 있는 만큼 군 자료의 보존성도 크게 높아졌다. 공군의 모든 자료가 모여서 공군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만큼, 통합 자료관 시스템을 이용한 자료의 축적은 공군의 역사를 보다 내실 있게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료의 보존성 증대에 따른 혜택 또한 적지 않다. 보존성 증대는 불필요한 손실을 막아 줄 수 있다. 토지보상을 일례로 들어 보자. 기존 토지보상이 완료된 땅에 대하여 보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이중으로 보상해야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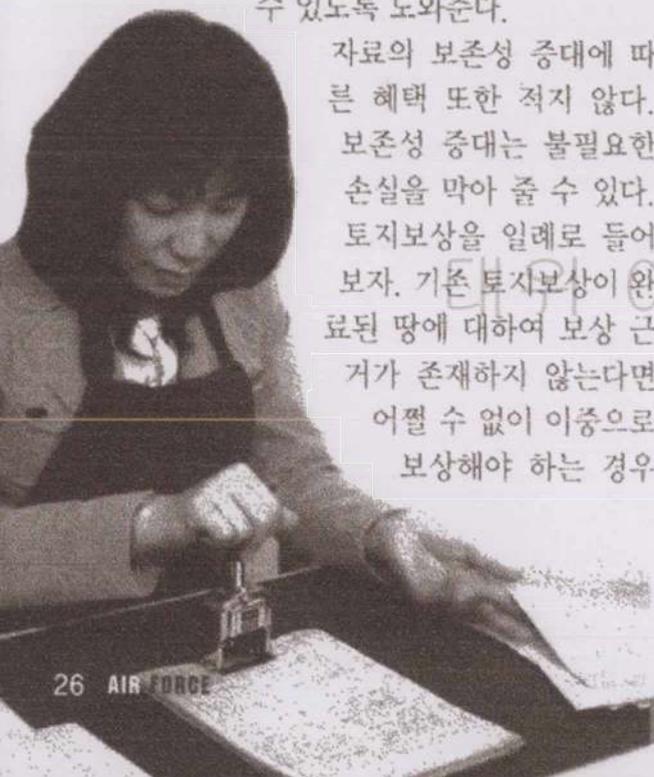
마이크로 필름 복제 작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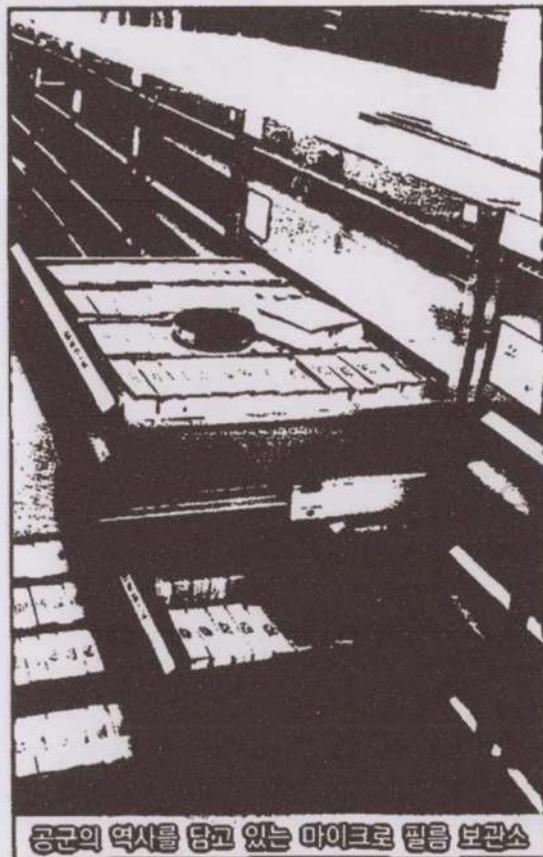
문서검색을 통해 찾아낸 6·25 당시 공정 특약



중잉기록물 보존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 중
중잉 기록보존소장 김재기 중령



공군 중앙 기록보존소의 '통합 자료관 시스템'이 정식으로 가동되면서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겪어야만 했던 번거로움과 시간낭비가 사라졌다. 이제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는 것으로 필요한 자료를 모두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공군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마이크로 필름 보관소

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 준다.

또한 공문서와 자료가 충실히 보존됨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이 증대됐다. 통합 자료관 시스템 하에서는 임의로 문서를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실상 은폐 및 왜곡이 사전에 저지된다. 또한 큰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서는 저장된 문서를 통해 사업 결정 및 예산 행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검증할 수 있어 사업을 둘러싼 잡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정책결정의 방향성 설정하는 것도 한결 용이해졌다. 공군 중앙 기록보존소의 motto 중 하나인 "기록은 우리의 역사이자 미래"라는 말처럼, 과거 여러 사업에 관한 문서를 검토하여 그 장단점을 철저히 검토하면, 미래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잘못된 방향성과 그에 따른 시행 착오는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디지털사고(史庫)도 만들 예정

중앙 기록보존소장 김재기(공사29기, 46중령)은 "21세기 디지털 기록 관리 역할을 선도하는 통합 자료관 시스템 구축으로 문서철을 가득 채워 놓는 시대는 곧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 실공히 군 최고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서 위상 면모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앞으로 공군 중앙 기록보존소는 통합 자료관 시스템에 머무르지 않고 기록물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디지털사고(史庫)인 '중앙기록물 보존 관리 시스템'을 약 15억원의 예산을 투입, 해 안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기록물 보존 관리 시스템'까지 완벽히 구축되면 공군 부대의 각 사무실에 있는 철저 문서철들도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

글 · 제2방공포병여단 중위 김 재
사진 · 제30방공관제단 중위 유 재

'작지만 강한 부대'



- 공군 제58항공수송단(다이만 부대) 방문기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준장 안 정 훈

쿠웨이트 도착 첫날 - 모래바람의 환영

태양이 작열하는 쿠웨이트의 무바라크 공항에 내렸다. 한국으로부터 6천여 마일 떨어진 쿠웨이트까지 전세기로 직접 날아오는데만 11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도착한 금요일은 이 곳의 휴일이다. 기관총을 장착한 호송경찰 차량이 올 때까지 참 오래 기다려야 했다. 황량한 사막 가운데로 난 길가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다.

알리 알 셀렘 기지에 있는 다이만 부대로 가는 길에 마침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어와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다. 토네이도처럼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치솟아 오르며 빠르게 앞으로 내달리는 모래바람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모래바람이 견히자 낙타 떼가 한가롭게 거니는 모습이 눈에 띈다. 한 사람이 30여 마리의 낙타를 몰고 간다. 전혀 몰아대지 않고 유유히 낙타에 올라타고 앞만 보고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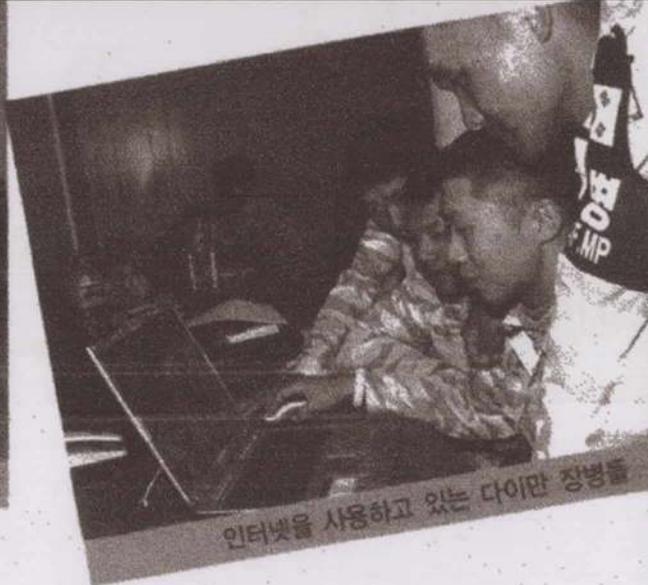
길 저편 사막에는 걸프전 때 파괴된 이라크군 탱크와 대포들을 모아둔 지역이 보였다. 차량으로 접근하려 했으나 모래벽으로 막혀 있어서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모래언덕을 넘었다.

강철 탱크가 고철 덩어리로 변해서 방치되어 있는 걸 보면서 무기의 효용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버려진 탱크와

다이만 장병을 격려하는 인 장군



의 부대할악상을 담은 대형 브로마이드를 선물하는 안 장군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다이만 장병들

트럭 그리고 대포는 거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고철업자가 보면 군침을 꿀꺽 삼킬 것 같다.

다이만 부대 스케치

다이만이 주둔하고 있는 알리 알 셀렘 기지에 들어오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이 기지는 쿠웨이트 공군이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어 상당히 안정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알리 알 셀렘 기지에는 쿠웨이트, 미국, 일본, 한국 공군이 주둔하고 있다.

인상적인 것은 걸프전 때 미공군이 핀 포인트 공격으로 이글루를 정확히 명중시켜 천장이 무너져 내린 것을 아직도 그냥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늘에서 보니 간이 행가가 여러개 있었고 그 사이에 견고한 이글루가 2개 있었는데 정확히 선별하여 명중시켜 2곳만 파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글루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을 직접 볼 수 있었다. 현대전에서 정보와 정밀무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꼈다.

한국 공군의 다이만 부대는 미군 지역내에 주둔시설을 건설했다. 컨테이너로 숙소, 사무실, 휴게실, 헬스장, 화장실, 샤워실, 식당, 창고 등

을 깔끔하게 배치했다. 모든 컨테이너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있다.

식당은 한국인 사장과 주방장 그리고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제3국인 종업원을 포함 총 7명이 운영하고 있었다. 우선 시설이 깨끗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오히려 국내의 일반 식당보다 낫다는 느낌을 받았다. 김치는 물론 콩비지국, 나물국, 물냉면까지 나왔다.

병사들은 자율 배식을 한다. 식후에는 주스나 커피 그리고 각종 이국적인 과일 등을 후식으로 자유롭게 골라 먹는다. 이들에게 지불되는 하루 식비는 11불 60센트란다.

신장된 국력을 실감하다

다이만 부대를 보고 우선 우리의 신장된 국력을 실감했다.

특히, 우리가 인터넷 강국임을 실감했다. 인터넷으로 바로 공군본부에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인프라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부대에서 바로 한국 YTN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각종 보급품도 부족함이 없다. 일회용 커피, 각종 음료수, 김라면 등등 국내와 똑같다. 냉장



다이만 부대장 이·취임식



다이만 부대 장병들과 함께 기념촬영

고 속에 한국의 국력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다. 장병들의 피복이나 선글라스 등등 외적으로도 세련되고 멋이 있었다.

런닝 머신을 비롯한 각종 헬스기구가 잘 갖추어져 있는 체육관은 항상 인기다. 술 안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니 몸짱 희망이 넘친다. 모두가 멋있게 보인다.

이 모두가 우리 다이만 부대원들의 노고와 열성의 결정체일 것이다. 단기간 동안에 이런 시설을 건설하고 부대를 안정 궤도에 올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마지막 날, 다이만 부대장 이·취임식

쿠웨이트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공항으로 태워다 줄 차량이 한시간 후면 출발한다.

오전에는 다이만 부대장 이·취임식이 성대하게 거행됐다. 강대희 장군이 떠나고 하태직 대령이 취임했다. 자이툰 군악대가 연주 지원을 나와 행사를 더욱 빛나게 했다. 군악대의 **효용이 정말 대단함을** 느꼈다. 동맹군 지휘관 참모와 송근호 대사님 그리고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외국에 나오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했던가? 이국에서 부르는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경례는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었다.

작지만 강한 우리의 다이만 부대

이제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기억도 차츰 흐려지고 있다. 열사와 모래바람의 신음 소리도 가물

가물 해진다. 그러나 이번 방문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방문하며 느끼고 체험한 것들은 귀중한 자산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사의 땅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삭지만 상한 우리의 나이만 부대 장병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난 뜨거운 찬사와 격려를 보낸다. ⊕

마지막 보너스

에필로그-낙타와 수송기

중동 사람들은 황량한 모래 사막에서 끈질기게 살아 남았다. 석유가 나오기 전까지는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다니며 상업활동을 했다.

낙타는 중동인들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큰 재산이었다. 지금은 대형 외제차가 거리를 질주하지만 낙타에 대한 향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별로 요긴하지도 않은 낙타를 여전히 기르고 있다.

수송기를 타고 조종석에서 바라본 사막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옛날에는 낙타를 타고 건넜지만 지금은 비행기로 건너는 것이 달라진 것 같다. 대상들과 교역품들을 운반했던 낙타의 역할을 우리의 수송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수송기는 현대판 낙타가 아닐까?



여군 **최초** 400회 무결함 비행지원 달성

- 공군 제1호 여군 기장 박선미 하사 -

사 람들은 '인생'이라는 산을 오른다. 그 산의 정상까지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정상까지 차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잘 닦인 길,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오르기 좋게 계단까지 놓인 길, 사람들이 가지 않아 풀과 나무들로 가로막힌 길.

어떤 길로 산을 오르든 그것은 자유다. 그렇지만 정상까지 올랐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길일까? 내가 그 길의 개척자여서 풀을 헤치며 올라야했던, 그러나 유난히 아름다운 볼거리가 많았던 길은 아닐까?

여기,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개척해가며 정상을 향해 산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공군에 들어와 정비사가 된 후로 제3훈련비행단 236정비 중대 박선미 하사 앞에는 항상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다. 작년 7월에 공군 여군으로는 처음으로 기장이 되었을 때도 그랬다. 그런 박 하사가 이번에는 'KT-1 400회 무결함 비행지원'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400회 무결함 지원

이것은 그녀가 정비를 책임진 항공기가 400회나 출격할 동안 단 한번의 사고도 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숙련된 정비사라도 300회 이상의 무결함 지원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베테랑 정비사들도 달성하기 어려운 기록을 여군 최초로 달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록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2002년 4월, 공군 부사관 184기로 임관해서 지금까지 정비사로 활약하면서 공군 최초의 여군 기장이라는 명예까지 얻은 박 하사는 지난해 6월에는 공군 전투평가대회에서 여군으로서는 최초로 우수 점검조 작전사령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9월에는 여군의 날 기념 여군발전단장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우수한 재원이다.

박 하사는 기장으로서는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낄 때는 "내가 정비한 KT-1 항공기가 학생조종사들이 처음으로 하는 단독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착륙하는 모습을 볼 때"라고 말한다.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만큼 내릴 때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

'공군 제1호 여군 기장' 이자 '여군 최초 400회 무결함 지원'이라는 박 하사 앞에 붙게 된 긴 타이틀. **박** 하사의 느낌은 어떨까? "항상 따라다니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부담스럽게 여겨지지만, 한편으론 그 이름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처음처럼 노력하는 군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하사가 다음에 달성할 '최초'는 어떤 것일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



섬에 여러 있는 불멸의 흔

충무공 사적지 한산도(閑山島) 탐방기

섬 구석구석 가득한 님의 자취를 좇아

한산도로 향하는 길, 충무공이 왜란 중 삼도수군의 본영으로 삼아 제해권을 장악했던 의미 있는 곳을 직접 본다는 생각에 한없이 설레었다. 거의 빠뜨리지 않고 보는 KBS의 대하사극 '불멸의 이순신' 탕도 있으리라. 마침 한산도를 찾은 그 주에 한산대첩분을 방송기로 예고하고 있던 터라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도 모른다.

통영에서 25분 뱃길을 따라 한산도에 다다를 즈음 바다 한가운데의 거북등대와 섬 정상에 한산대첩기념비가 배를 반긴다. 한산대첩기념비는 임진왜란 중 조선 수군이 1592년 7월 8일 왜의 전선들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한 뒤 학익진(鶴翼陣)을 펼쳐 포와 활로 47척을 격침시키고 12척

을 포획한 한산도대첩과, 이틀 뒤인 7월 10일 안골포 앞바다에서 왜적선 42척을 불태운 안골포 해전을 장쾌히 서사하고 있다.

한산도를 충무공이 1593년부터 1597년까지 삼도수군의 본영으로 삼은 곳이다. 배에서 내려 한산문을 거쳐 반원형으로 굽이진 동백길을 걸으면 왼쪽 편에 공과 수군들이 사용하던 우물이 하나 있다. 이 물은 바다와 지척인데도 짠맛이 없고 수량이 많다고 하는데 공이 병사들과 함께 마시던 물이라 생각하니 그 맛 역시 깊이가 느껴진다.

대첩문과 충무문을 지나면 정면에 제승당(制勝堂)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곳은 왜란 당시 충무공이 작전지휘소로 쓴 곳으로 당시 이름은 운주당(運籌堂)이었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 통제사



원군의 대패로 소실된 것을 1740년 107대 통제사 조경이 제송당이란 이름으로 중건했고, 이를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새로 지었다고 한다. 당내에는 왜란 당시 우리 수군의 주화력이었던 지자총통과 현자총통, 그리고 노량해전도, 진중생활도, 한산대첩도 등 기록화들이 전시되어 있다.

제송당 뒤편에는 한산정(閑山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여기는 충무공이 부하들과 함께 활쏘기를 연마 하던 곳으로, 정자에서 과녁까지의 거리는 145m, 그 사이에는 바다가 놓여있다. 선상에서

활을 쏘아야 하는 수군 사수들에겐 가장 이상적인 훈련장이 되었으리라. 난중일기에 따르면 여기서 활쏘기 내기를 해 진 편이 떡과 막걸리를 내어 배불리 먹었다고 한다. 부하들의 기량과 사기를 올리려 부단히 노력했던 공의 일면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

제송당 좌측으로 있는 유허비(遺墟碑)를 지나면 공의 영정을 모신 충무사(忠武祠)에 이르게 된다.

종이품(從二品) 통제사의 관복을 입은 공의 모습엔 40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우국충정의 굳건한 심지가 배어있는 듯하다.



한산정

미륵산이, 뒤쪽에는 명산이 있는데 각 봉우리마다 봉화나 고동 등 신호수단들이 설치되어 식별된 적정을 전파했다고 전해진다. 공 역시 이 곳에 자주 올라 한산만 너머 적의 동태도 살피고,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켜내기 위해 고심하고 또 고심했다고 한다. 망루의 기둥, 난간, 바닥 곳곳마다 공의 한숨, 공의 기도, 공의 고뇌가 깊이 어려있는 듯하다.



수루

제승당이 위치한 한산도 북서쪽 일대의 지명은 두억리(頭億里)인데, 이는 그 앞바다에서 잘린 왜군의 목이 억 개나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제승당 뒤편에 있는 개미목은 달아나던 왜군들이 개미떼처럼 들러붙었던 곳이라 해서 그리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실로 충무공이 이끌던 조선 수군의 용전상은 이 지역 곳곳의 이름에까지도 스며들어 있다.

국가의 존망, 그 갈림길에 있던 섬

다시 배를 타고 통영으로 향하는 바닷길. 수정 같이 맑은 바다 위에 점점이 떠 있는 작은 섬들과 기암들은 어느 쪽을 둘러봐도 한 폭의 동양화

함성, 비명과 울부짖음 가득한 아비규환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한산도 대첩 이전에도 충무공은 수 차례의 해전에서 전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 대첩의 의미가 큰 이유는 이전의 해전들이 정박해 있는 왜의 함선들에 대한 기습으로 승리를 거머쥔 계략라전 형태였던 데 반해, 한산도 대첩은 연이은 패전으로 조선에의 수륙병진 계획에 차질을 빚은 왜군이 수군명장들과 주력함대를 총동원해 조선 수군의 주력함을 정면으로 타격한 총력전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수군은 최선에 돌격선인 거북선과 주력함이었던 판옥선, 대적우세였던 함재포, 지형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한 충무공의 천재적 전술에 힘입어 내승을 거둔다. 실로 조선에게는 존망이, 왜군에게는 전쟁의 성패가 걸려있던 이 싸움에서 승리의 신우 조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충무공의 승리가 주는 교훈 중에 가장 큰 것은 공이 새로운 전장, 새로운 전투방식을 추구했다는 것, 또한 육전에서의 참담한 패배를 해전으로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 도선 중심의 싸움이 주를 이루었던 재래식 해전개념을 거부하고 함대함 포격전 중심의 전술을 펼쳤다는 점 등은 미래지향적 사고와 준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역사는 이와 비견될 만한 전쟁개념의 변화를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20세기에 들어 항공기의 발달과 공중전의 등장으로 야기된 바 있다. 우리 공군인들에게 충무공의 정신이 큰 의미를 지니는 까닭을 이런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공군본부 대위 조 세영** **원자 없다 싶다.**



수루에서 바라본 한산도

6월의 공군 역사

공군 최초의 제트항공기 F-86F 도입(1955)

6·25전쟁 이후 북한은 공군력을 급속히 증강시켜 MiG-15 제트전투기 3개 사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공군의 전력증강과 현대화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전력증강 및 제트화를 강력히 추진한 공군은 1954년 11월 29일 한·미 고위 군사회담을 통해 한국 공군 제트화에 합의하고, 1955년 6월 20일 제트전투기 F-86F 5대를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우리 공군의 제트화 시대가 개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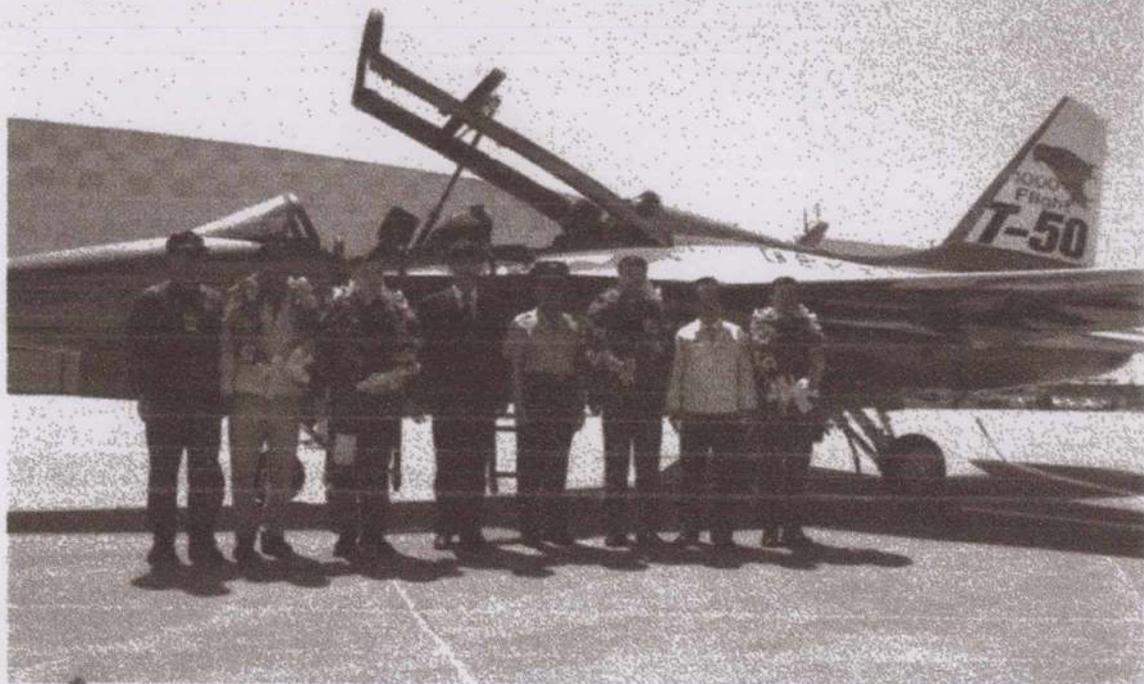


레이더기지 종합 준공(1968)

1960년부터 우리 공군은 공군의 눈과 귀와 같은 방공임무를 수행할 레이더기지 건설, 장거리 통신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레이더기지 현대화 사업'에 착수하여, 1968년도에 완료하였다. 1968년 6월 13일, 1년 365일 무중단 작전이 가능하도록 완벽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레이더기지 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 6. 1. 항공안전관리단 창설(1995, 진주)
- 6. 7. T-37 훈련기 도입(1973)
팀스피리트훈련 최초 실시(1976)
- 6. 10. 공군사관학교 제1기 사관생도 입교(1949)
- 6. 12. 독산도 출현 무장간첩선 격침(1969)
- 6. 13. 레이더기지 종합 준공(1968)
RF-5A 정찰기 도입(1972)
- 6. 15. C-123 수송기 도입(1973)
- 6. 19. HH-32(Ka-32A) 항공기 도입(2004)
- 6. 20. 공군 최초의 제트항공기 F-86F 도입(1955)
- 6. 25. 6·25전쟁 발발(1950)
- 6. 27. F-16 필승보라매 명명식(1986)
- 6. 28. 한국 공군 최초의 월남 파병(1965)
EC-470 정보수집기 도입(1975)
- 6. 29. F-51 무스탕항공기 퇴역(1957)
- 6. 30. C-54 수송기 도입(1966)
UH-1N 헬기 퇴역(2004)



가슴 벅찬 T-50 비행시험 1,000회

2005년 5월 10일. 이날은 대한민국 항공사에 또 하나의 굵직한 획이 그어진 날이다. 공군과 (주)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T-50 고등훈련기 비행시험이 1,000회를 돌파한 것이다. 다른 항공기라면 몇 만, 몇 십만회 정도는 돼야 인정받을 텐데 고작 1,000회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으리라.

그러나 시험용으로 제작하여 성능과 특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항공기(시제기)에 대한 비행시험은 전투기로 친다면 실전과 같은 의미를 가짐을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시제기의 비행 시험

1,000회는 전투기의 전장 출격 1,000회와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기록으로 우리 나라는 세계 열두 번째 고속 항공기 비행 시험 성공을 목전에 두게 된다. 실제로 항공 선진국의 개발 항공기도 1,000여 회의 비행 시험으로 개발이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과학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항공 산업 분야에서 이 같은 진일보는 국가적인 쾌거가 아닐 수 없다.

T-50은 1997년부터 개발되기 시작, 2005년 10월 31일 시제기가 완성됐다. 수많은 단



로 단순한 침투 비행이 아니다. 갖가지 극한 조건에서 시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위험은 훨씬 크다. 설계진과 기술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를 수 없는 일이다.

T-50의 개발은 올 하반기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것은 공군 전력화 소요의 충족뿐만 아니라 이를 교두보로 해 우리의 항공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지상 시험 과정을 거친 후 2002년 8월 20일 첫 비행을 무사히 수행함으로써 세계 항공 산업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비행 시험 한번 한 번마다 조종사들과 기술진의 땀과 눈물, 헤아릴 수 없는 밤샘 작업이 숨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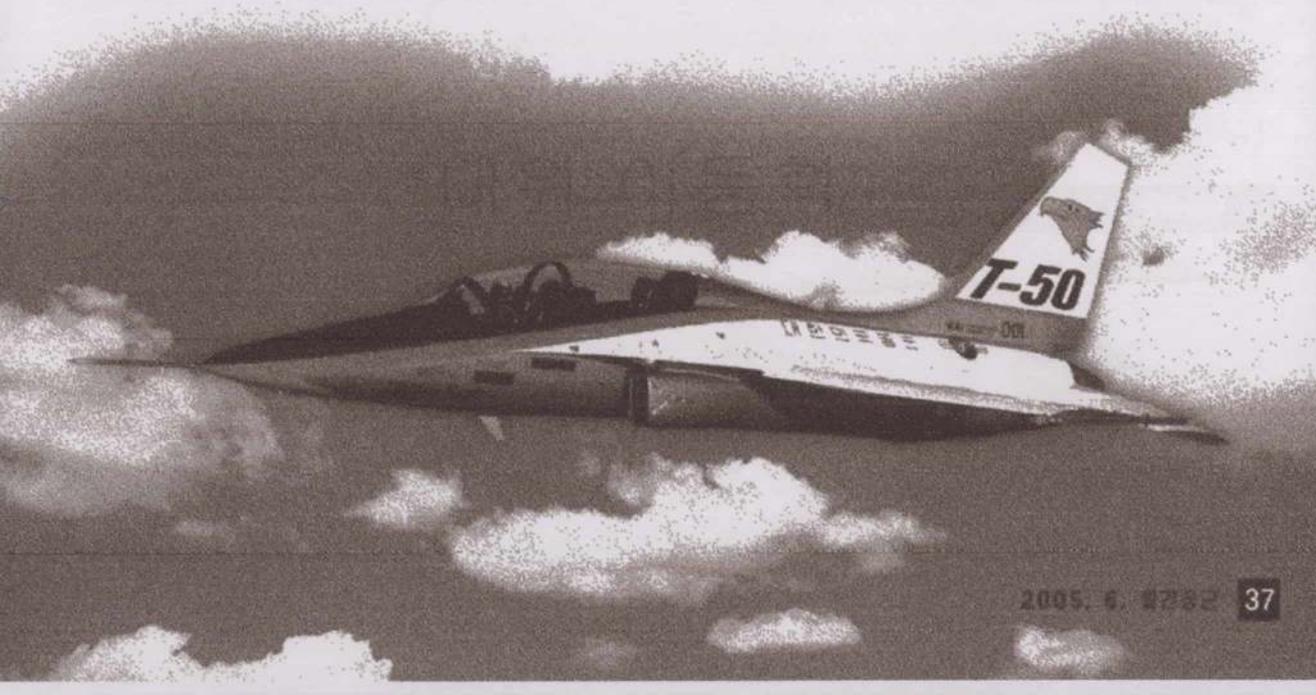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설계 작업, 거듭된 수정, 제작과 재제작, 부품으로부터 시스템, 시스템으로부터 전체 항공기, 부분별 기능 시험으로부터 지상 통합 시험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숨어 있다.

특히 조종간을 잡고 비행 시험을 직접 수행한 공군의 시험 비행 조종사들에게 뜨거운 찬사를 보낸다. 시제기 비행에는 늘 위험이 따른다. 성

과거 '포니'를 발판으로 삼은 우리의 자동차 산업이 지금은 세계 6위의 생산 규모를 자랑하며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목도하고 있다. 이제 T-50은 앞서 개발된 KT-1과 더불어 국내 항공 산업의 '포니'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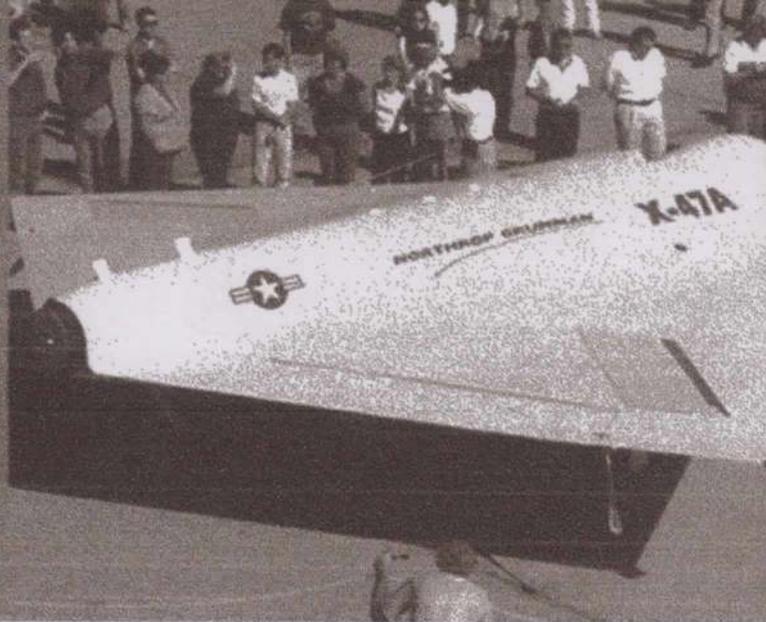
T-50 1,000회 비행 시험. 이룬 것도 많지만 해야 할 것도 많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000회가 되기까지 이 거대하고 막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많은 사람들은 모든 장애를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1,000회 비행 시험이 가져다 준 힘이 있기 때문이다. ⊕

공군항공사업단 고등훈련기사업처장 대령 기예호



무인전투기

X-47 페가수스



지 난호에 다루었던 미 공군의 X-45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미 해군의 X-47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기본적으로 미 해군의 무인전투기 개념은 미 공군과 명백하게 다르다. 미 해군 항공시스템 사령부에 따르면, 미 해군의 무인전투기는 우선적으로 정보, 감시, 그리고 정찰(ISR :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임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신속하게 전투 임무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제 함정에 배치되면 일단은 다중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추가로 항모에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미 공군의 기준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셈이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미 해군의 무인항공기에 대해 알아보자.

미 해군의 무인항공기 X-47 페가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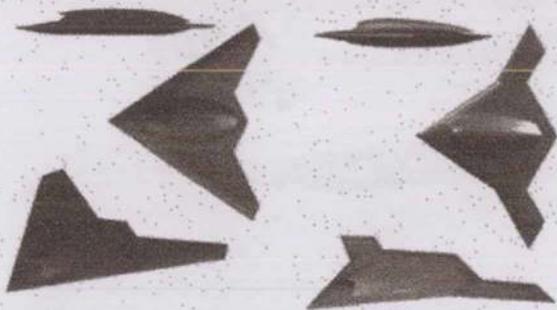
2003년 2월 23일 아침 7시 56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China Lake, 미 노스롭 그러먼(Northrop Grumman)사가 개발한 무인항공기 X-47 페가수스(Pegasus)는 12분에 걸친 비행동안 저속상태에서의 비행성, 항공기 성능, 그리고 항법성능 등을 검증하였다. 또한 미리 지정된 장소와 매우 가까운 곳에 착륙함으로써 함상착륙용 고리가 장착된 항공모함에서의 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이런 고정밀 착륙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하였다. X-47A Pegasus 무인전투기 계획은 해상에 기반을 두고 적 방공 억제임무, 공격, 그리고 감시 및 초계 능력을 보유하는 무인전투기의 기술적 가능성을 시험 검증하고 개발하는 계획이다.

미 해군 특유의 무인전투기 요구조건은, 먼저 해상 및 전투지역 초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2시간 이상의 항속 성능을 보유해야 하고, 항모 환경에서 작전, 발진, 귀환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무인전투기로 인해 함정의 설계를 바꾸거나 기존의 항모 작전 절차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스롭 그러먼사는 저렴한 가격, 조기 제작이 가능한 시제, 용이한 무인기 관리와 항모에서 운용시 자율적인 이륙과 귀환을 위해 꼬리날개가 없는 X-47A 페가수스(Pegasus)를 설계·제작하였다.

Boeing - X-45

Northrop Grumman - X-47



<X-45, 47 비교>

노스롭 그러먼사에서 미 해군을 위해 제작한 X-47에는 시제작 원형으로 세부 기술들을 적용한 X-47A와 개선 시험기인 X-47B가 있다.

X-47B는 X-47A를 더 크게 하여 수정 개선한 합동 무인전투항공시스템(J-UCAS : Joint Unmanned Combat Air System) 시험기로서, 공통 목표로 4,500lb(2,041kg)의 유효 탑재량과 1,300NM(2,407km)의 전투반경, 그리고 1,000NM(1,852km) 떨어진 목표 상공에서 2시간 동안 체공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초도 비행은 2006년에 할 계획이다.



2003년 2월 23일 초도 비행중인 노스롭 그러먼사의 X-47A Pegasus

기체 구조

X-47의 기체 구조는 언뜻 보면 가오리와 비슷하다. 스텔스 형상과 비슷한 X-47의 입구는 좁고 넓게 틈이 나 있으며, 입구의 앞은 어떠한 각도에서도 직접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 앞면이 둥글게 돌출된 모양을 가지고 있다.

기체는 전체가 탄소 복합재료, 전연에서 55도의 후퇴각과 후연에서 30도의 전진각을 가진 다이아몬드 모양의 평면도를 가지며, 좌·우 한 쌍의 큰 승강타(방향기) 겸용 보조 날개와 승강타 앞쪽 몸통에 위치한 좌우 2세트의 상·하면 플랩(Flap : 고양력장치)을 포함한 단순한 비행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승강타는 상·하와 횡전 제어에 사용하고 상·하면 플랩은 yaw(항공기가 한 쪽으로 흔들리는 현상) 제어와 강하각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항력을 조절할 때 사용한다.

역에 홀쭉한 둥근 원형 센서 또는 위성파 연결되는 통신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 후방 동체 뒷부분에 착함(着艦) 속도 제어장치와 항공모함에서 운용시 튼튼한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기체 크기와 특성

X-47은 기체의 길이가 8.5m에 날개폭이 8.47m이다. 날개 면적은 389ft²이며, 높이는 1.86m이다. 기본 중량은 1,740kg에 연료는 472kg을 탑재하며, 최대 이륙 중량은 2,678kg이다. 동체 위쪽 전방상부에 터보팬 엔진인 Pratt & Whitney Canada의 JT15D-5C를 장착하였으며, 날개는 접을 수 있게 설계되어 항모 탑재시 작은 공간을 차지한다.

향후 전망

미 해군의 무인전투기는 미 공군과 같이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보잉(Boeing)사와 노스롭 그러먼사가 설계연구, 시스템 분석, 초기 설계작업 등을 위해 1단계 연구를 진행하며 향후 주 계약자가 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2단계에선 무인기를 항모에서 발진시키고 귀환시키는 문제와 지휘통제 및 통신의 적합성을 검증하게 된다.

현재 노스롭 그러먼사가 X-47 Pegasus를 제작하여 보잉사에 비해 훨씬 앞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방고등연구기획국(DARPA)은 2단계 종료 전까지 2개사의 경쟁 환경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2단계는 2002년에 시작하여 3년 반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단계 계획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2005년 이후에는 3단계 계획이 추진된다. 미 공군의 무인전투기 계획이 예상대로 추진된다면, 미 해군의 무인전투기 계획도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체계개발을 시작하여 아마도 2015년 경에는 미 공군과 같이 무인전투기가 일선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④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위성항법체계

일상생활 속의 GPS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전쟁이나 특수요원을 소재로 한 영화 속에서만 등장했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나 친숙하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쓰이고 있다. 이미 많은 차량들이 GPS 칩이 내장된 네비게이션 장치를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작은 휴대폰이나 PDA에도 칩이 내장되어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GPS의 탄생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위성항법체계인 GPS는 왜 필요한 것이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아프리카의 사막, 아마존의 밀림 속에서 길을 잃었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기가 쉬울 것이다. GPS의 기본적 기능인 정확한 위치 측정은 수많은 분야로 응용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민간 항공기나 선박 등에서 항법 수단으로 GPS를 사용하고 있지만, 처음 GPS는 군사적으로 적 목표물을 정확히 공격하기 위해 세밀한 위치 정보가 필요하여 탄생하게 되었다. GPS의 등장으로 무기체계의 위치 정확도는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항공기에서 투하된 폭탄은 유도없이 수십 km를 비행한 후 GPS로 얻은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수 m 이내 오차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성항법체계의 대표, 미국의 GPS

위성항법체계의 대표 주자인 GPS는 1973년 개발이 시작되어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되고 있으며 시간과 기상상황에 관계없이 지구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24개의 위성이 20,200km 상공에서 6개의 궤도면을 따라

운행하고 있다. 이러한 궤도 배치로 인해 항상 4개에서 8개의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의 수신이 가능하게 되고 이 중 4개의 위성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계산하게 된다. 주 통제소는 미국 콜로라도 팔콘 공군기지에 있으며 전 세계에 위치한 5개의 감시소와 데이터 통신소를 통해 체계를 제어한다. GPS에서는 두 종류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하나는 상용으로 C/A(Clear and Acquisition) 부호를 이용하여 비교적 낮은 정확도(대략 20~30m)를 제공하고, 다른 하나는 군용으로 P(Precision) 부호를 이용하여 10m(최소 3m) 이내의 높은 정확도를 제공한다.

1983년 KAL-007기 격추 사건을 계기로 민간 항법목적으로 개방된 GPS는 현재 무료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비교적 오차가 큰 상용서비스라 할지라도 적국이나 테러조직에서의 악의적인 사용을 우려하여 고의적인 오차(SA : Selective Availability)를 주입하기도 했었으나, 이같은 고



용 목적의 GPS 활용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의 추격, GLONASS

현재 완벽하게 구축된 위성항법체계는 오직 미국의 GPS뿐으로 이러한 독점운영에 대하여 위협을 느낀 러시아는 1982년 위성항법체계의 개발을 시작하여 2개의 궤도면에 7개의 위성으로 구축한 1단계 GLONASS 프로그램을 1991년 완성하였다. 1995년에는 보강을 위해 3개의 위성을 추가 발사하였다. 경제적 문제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러시아는 1999년 GLONASS의 개발과 개선을 위해 새로운 차원의 국제 협력을 도모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2001년 러시아 연방 정부는 GLONASS 운영의 민간 이양과 민간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2011년 운용을 목표로 GLONASS-M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유럽의 반격, GALILEO

유럽연합은 GPS와 GLONASS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위성항법체계의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여 GALILEO라는 독자적인 위성항법체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2008년 구축예정인 GALILEO는 GPS보다 많은 30개의 위성을 23,000km 상공의 3개 궤도에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군사용 GPS보다 뛰어난 1m급의 위치 정확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GALILEO는 위치

및 시각정보뿐만 아니라 기상정보, 교통정보, 사고정보, 응급구조 등과 관련된 기능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GPS와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GALILEO는 2004년 초 군사부분을 제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조달 비용 및 투자 위험부 감소를 위해 제3국의 참여를 적극 유도 중이다. 라서, 향후 GPS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위성항법체계의 발전 방향

전 지구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성항법체계는 위성 기반으로 인한 근본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다. 태양으로부터 전력을 생산하는 한 점으로 인해 송신하는 신호의 세기는 100W 미만이고 무려 20,000km 이상의 고도에서 운용되고 있다.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는 지 20,000km 높이에서 빛나고 있는 형광등 빛을 지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다. 또 낮은 출력으로 인해 재밍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발사할 위성들은 송신 출력력을 높이고 각종 반재밍(Anti-Jamming) 기술들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개발할 예정인 GALILEO는 GPS나 GLONASS의 신호를 동시에 수신하여 효율성과 신뢰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알려져 있다.



GALILEO 위성항법체계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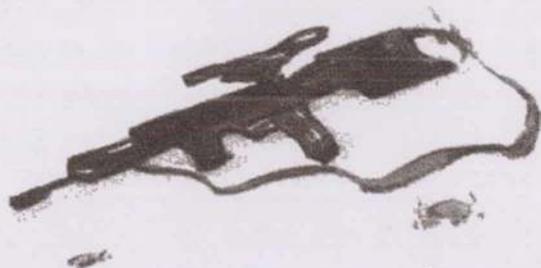


유럽연합의 GALILEO 위성

현재 계획하고 있는 GPSⅢ, GALILEO, GLONASS-M 등의 체계 구축이 완료되면 위성항법체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에는 너무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위성항법체계가 우리 생활에 상상하기 힘든 변화를 가져다줄 것은 분명하다. ⊕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우주무기

사이공 최후의 날



구성 : 김영삼
그림 : 김영삼

1975년 4월 30일 오전, 전차 대가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의 대통령궁 정문을 부수며 진입하고, 곧이어 북베트남 수뇌부인 호찌민이 체포된다. 국기계양대로 달려와 남베트남의 국기를 끌어 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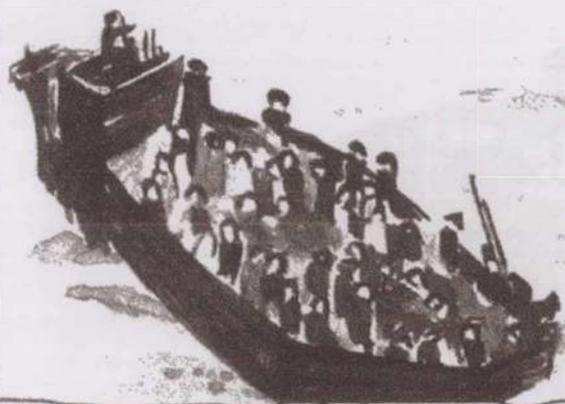


대위 이동학



이 단서는 '대위 이동학'을 주제로 20년만에 출간된
이 단서는 '대위 이동학'을 주제로 20년만에 출간된

북베트남의 한적양면전투에 기만당한 채 무명방사
상태로 있던 남베트남의 군대원 북베트남의 거머잡
당하곤 하였지만 북베트남도 선택받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태백산의 대가도 같았습니다.



170만의 공무원과 군 간부가 무용되거나
강제이주되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산주의 인간개조'의 명목으로
비인간적인 교육에 강박되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75년 한해에만 23만의
북베트남이 생겨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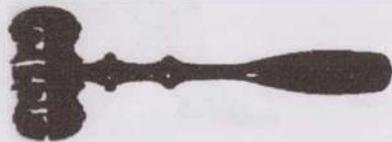
북베트남 중 근인 출신의 한 남민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고 심어도
당 국기가 없다. 백기세 무는 큰 자를 쓸 것인가?
'후회'라는 단어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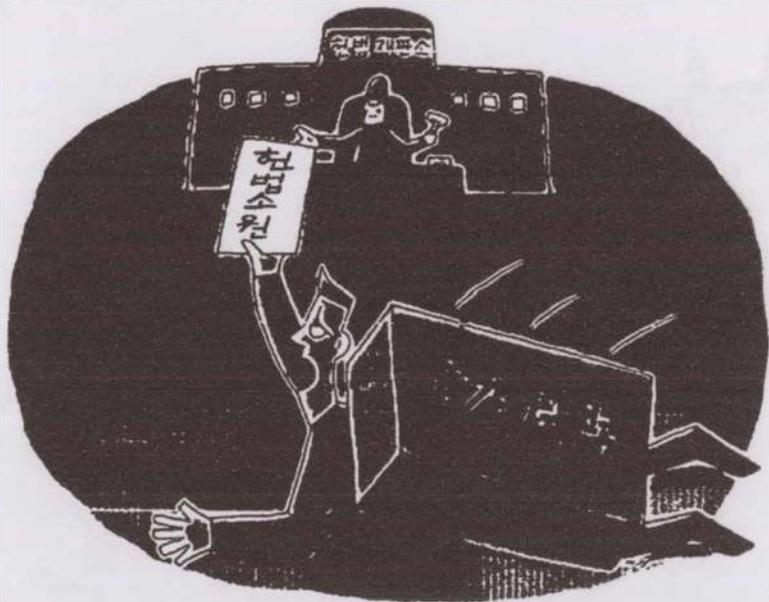
태위 이동혁



학교한 안보관 없이는 나라는 지킬 수 없습니다.
'사이징 최후의 날'을 타산치적으로 삼고 국방의
의무를 신성히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에 관하여



한국의 2004년, 그리고 헌법재판소

2004년, 한국 사회를 수놓았던 무수한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통령 탄핵심판'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헌법재판소였다.

지난 십수년간 국민의 관심을 그다지 끌지 못했던 이 기관에, 작년 한해는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방송 3사가 생중계를 펼치는, 다소 생경한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헌법재판이란?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

서, 헌법재판이란 헌법을 해석, 적용하는 과정에서 헌법규정의 올바른 뜻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권위있는 국가의 재판기관이 그 헌법의 위반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미국이나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없다고 의아해 하는 분도 있으나, 위와 같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 일본의 경우 대법원이 헌법재판까지 담당하지만,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헌법재판의 종류로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위 각 심판들의 내용과 함께 헌법재판의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헌법소원

헌법소원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 그 효력을 없애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인데, 입법부의 경우 입법행위일 것이며, 행정부의 경우 행정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사법부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점이 특색이다. 그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법부는 기본권 침해재판이라기보다는 기본권 보호기관이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재판을 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헌법소원은 어떤 경우이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단은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자기관련성). 또한, 기본권의 침해가 유지되어야 한다(침해의 현재성). 덧붙여, 헌법소원은 타를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보충성).

위헌법률심판

이것은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헌법률심판이 이루어지려면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한다.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은 보통의 형벌로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하여 탄핵소수가 있을 때 이를 재판하는 것이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할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 지를 심판하는 것이다. 아직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 심판을 한 적은 없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간에 권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때 그 권한의 소재에 대하여 판단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이다.

헌법재판의 특색

그렇다면 일반재판과 헌법재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선, 헌법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일반재판과 차이가 있다. 이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고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 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고 무자격자인 경우와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 또한 국민의 기본권 구제가 경제적인 장벽에 의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의 효력은 일반재판에 비하여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 이는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의 결과를 존중함에 기인한다. 그렇지 않은 국가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마 치 며

이상에서 최근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헌법재판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사람에 의한 지배로부터 법에 의한 지배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가 앞서는 올바른-법치사회의-구현을-위해서는-헌법재판소의 노력만큼이나 우리의 관심 또한 중요함을 명심하자. ⊕



한밤의 불청객, 코골이

의 무실에는 많은 장병들이 크고 작은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다. 특히 군대에서는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입대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지병을 발견하기도 한다. "코골이"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이다. 대부분 주변 동료들의 이야기로 자신이 코를 곤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갖게 되는데, 코골이는 단순히 나쁜 버릇이 아니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코골이의 원인

코골이는 매우 흔한 질병이다. 습관적인 코골이 환자는 남자 성인의 경우 24~50%, 여자의 경우 14~30% 정도로 추정된다. 코골이는 수면 중 일어나는 기도폐쇄로 인해 발생한다.

단순히 코골이만 있는 가벼운 형태에서부터 폐쇄성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심각한 형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코골이는 남자에서 더 심하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비만이 심한 경우, 편도가 과도하게 비대한 소아(小兒)의 경우,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부비동염 등의 비(鼻)폐쇄를 일으키는 질환이 있는 경우, 알코올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빈도가 증가한다.

특이할 점은,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들은 몇 가지 신체상의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가 비만이고, 전형적으로 짧고 굵은 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골이의 증상

코골이는 많은 공기가 좁아진 기도를 갑자기 통과하면서 생긴다. 심한 소음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룰 정도가 되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할 경우 코골이의 소음이 100dB에 이르러, 소음성 난청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인 자신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심한 두통을 호소하거나, 낮 동안 심하게 졸리는 증상과 집중력, 기억력 장애를 동반한 인지장애나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 또한 수면무호



흡증의 합병증으로 고혈압, 협심증, 폐질환, 성기능장애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코골이의 치료

이제 코골이의 치료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행동요법만으로도 코골이 증상이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비만은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경증 환자의 경우 10%의 체중감량으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알코올, 진정제, 수면제 등 수면무호흡증을 악화시키는 약물을 중단한다. 잘 때 하늘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경우 중력에 의해 턱과 혀가 후방으로 밀리기 때문에 기도가 좁아져 코골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도움이 된다. 똑바로 누워 자지 못하도록 환자 잠옷의 등부분에 2개의 테니스공을 넣은 양말을 핀으로 고정하거나 실로 꿰매어 놓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둘째, 기도폐쇄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치료를 시행한다. 편도비대증이 있는 경우 편도절제술을 실시하고, 비폐쇄를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 비염, 비중격만곡증, 부비동염 등의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셋째, '지속적 기도양압공급'이라는 방법이 있

다. TV 정보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환자는 코 위에 밀착되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면을 취하며, 마스크는 침상에 비치된 작은 펌프로 연결되어 일정한 압력이 코에 지속적으로 가해져 기도를 넓혀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수면무호흡증이 99%까지 치료된다.

코골이는 가벼운 경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줌은 물론 본인에게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져와 정신·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또한 신체적인 여러 합병증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주변에 코골이 때문에 고민하는 장병이 있거든 반드시 의무실을 방문하도록 설득하여 모든 공군인들이 편안한 밤을 보내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아래 표는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자가 선별 질문서이다. 함께 지내는 동료들도 함께 질문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제3방공포병여단 군의관 대위 강 지 호

〈당신은 수면무호흡증이 있습니까?〉

1. 당신은 크게 코를 골고 있습니까?
2. 당신과 함께 지내는 동료들은 당신의 코골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3. 당신은 코골이 때문에 밤에 잠에서 깨게 됩니까?
4. 당신과 함께 지내는 동료들은 당신이 자는 동안 헐떡이거나 질식할 듯한 소음을 낸다고 인식한 적이 있습니까?
5. 당신은 아침에 입이 마르고 목이 아프고 두통을 호소합니까?
6. 당신은 종종 낮 동안 당신이 깨어 있기를 원할 때 잠에 골아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7. 당신은 종종 낮 동안 피로함을 느끼니까?
8. 당신은 혈압이 높은 편입니까?

까~악!

'슈렉'이 얼짱?!



고정관념 뒤집는 발칙한 상상력

애니메이션 <슈렉> 시리즈의 재미는 2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록색 괴물 '슈렉(Shrek)'의 명연기는 현재 3편의 촬영현장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고, 머잖아 4편에서도 우린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3편과 4편의 스토리라인(story-line)을 모두 알고 있지만 독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싶지 않기에 3편은 접어두고 4편에 관한 정보만 살짝 귀뜸해드릴게요.

4편의 시점은 1편의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걸 영화용어로는 prequel이라고 부르는데요, 속편에 해당하는 sequel과 반대어이지요. 1편에서 숲속의 늪지에 살고 있던 '슈렉'은 사실 초록색 괴물들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이랍니다. 그것도 '왕따'가 돼서 말이지요. 어쩌다가 왕따가 됐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슈렉'이 그들의 나라에서 최고의 '얼짱'이었다고 하네요. 허걱! 하지만 고정관념을 발각 뒤집는 작가의 발칙한 상상력이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제가 '슈렉'의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은 이번호에서 애니메이션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

대할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아닙니다.

<슈렉2>에 새로 가세한 등장인물이 누군지 알고요? '신입생이나 새 멤버, 새 등장인물'을 new face라고 하는데요, 바로 '장화 신은 고양이' Puss in Boots'입니다. 양손(?)을 턱밑까지 치켜들고는 눈망울을 애처롭게 굴리던 그 양중맛은 고양이 말이지요.

서설이 길어졌군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영화 관람등급이 있으나마나 했던 그 시절엔 극장에 입장하는 어른들한테 '장화 신은 고양이' 처럼 애처롭게 눈망울을 굴리면서 입장객의 옷소매를 붙잡으면 어지간한 영화는 다 공짜로 볼 수 있었답니다. 그 무렵에 본 영화 중에서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송곳니로 목에 구멍을 뚫고 피를 빠는 '드라큘라'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당시 유행하던 팝송인 '탐 존스'의 '델라일라·Dehliah'를 '드라큘라' 영화의 주제가곡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디선가 '델라일라' 노래만 흘러나오면 기겁을 했었습니다. 그런 악몽의 기억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저는 '무서운 영화'는 거의 보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보나 공포영화의 명장면들만을 뽑아서 만든 <무서운 영화·Scary Movie>라는 작품도 있군요.



"What is your favorite scary movie?"

수많은 영화장르 가운데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면 어김없이 우리 곁을 찾아오는 장르가 있지요. 바로 호러영화입니다. 제가 번역한 영화들 가운데 호러영화는 한 손으로도 꼽기가 힘든데요, 그나마 제가 외화번역가가 아니었다면 그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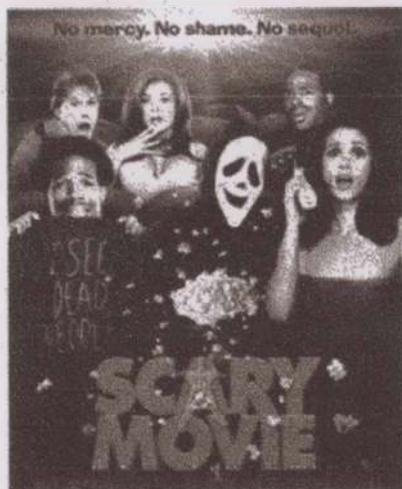
영화는 아마 평생 보지 않았을 겁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작은 주사기 바늘만이라도 화면에 나 올라치면 인상을 찌푸리며 눈을 돌려버리는 제가 무서운 장면들을 반복적으로 돌려가며 번역해야 했으니 이만저만 악몽이 아니었겠지요. 영화제목이 '비명'이란 뜻인 <스크림·Scream>에는 '카메오·Cameo'로 등장하는 '드류 배리모어'가 한밤중에 정체불명의 괴한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오프닝 장면이 나오지요. 호러영화들의 베스트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그 도입부에서 괴한은 '케이스·Casey'로 분한 '드류 배리모어'에게 전화로 이렇게 묻지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공포영화가 뭐지? What is your favorite scary movie?"

영화제목에서 확인했듯이 형용사인 scary는 '무서운·frightening'의 뜻이지요. 그러므로 '무서운 순간'은 scary moment, '난 어젯밤 짱 무서운 꿈을 꾸었어.'는 I had a really scary dream last night. **라고 하면 되겠**군요. Scary의 동사는 scare인데요, '누군가를 겁먹게 만들다·frighten'의 뜻입니다. '겁먹은'처럼 수동의 의미를 담고 싶을 때는 scared를 쓰면 되는데요, afraid와 같은 뜻이지요. 그러므로 '난 고소공포증이 있어.'를 표현하려면 I'm scared of heights. **라고 하면 되지요.**

I scream과 Ice cream

'유대인 학살'이라는 공포적인 소재를 감동적

인 코미디로 풀어낸 <인생은 아름다워>는 이탈리아 감독인 "로베르토 베니니·Roberto Benigni"가 감독하고 주연한 걸작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작품이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로베르토 베니니'는 '짐 자무쉬·Jim Jarmusch' 감독의 <다운 바이 로·Down By Law>에서 이런 멋진 명대사를 날립니다. "I scream. You scream. We all scream. For Ice Cream." I scream과 Ice cream으로 절묘하게 펀(pun·언어의 유희)을 쳤군요.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나도 비명 지르고, 너도 비명 지르고, 우리 모두 비명을 지른다. 아이스크림 때문에!"입니다.



Scream이 명사일 때 반드시 '무서운 상황에서 지르는 큰 소리의 비명'만을 뜻하는 건 아니지요. 다치거나 무척 기쁜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단어랍니다. 'She gave a scream of delight as she opened the present. 그녀는 선물을 풀면서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처럼 말이지요. Scream이 동사로 쓰일 때는 '비명을 지른다'인데요, shriek와 동의어입니다. 앗! 우리의 사랑스러운 초록색 괴물의 이름인 "슈렉·Shrek"과 철자가 닮았군요. 아하! 누구나 '슈렉'만 보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치니까 그렇게 작명을 했겠군요. 역시! **☺**

외화번역가 이 미 도

<이미도의 동푸른 활어영어> 저자

6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밀레와 바르비종파 거장展

소박하고 서정적인 삶과 인간 생명의 모태인 따뜻한 자연,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휴머니즘과 시골의 편안한 풍경을 그린 자연주의 바르비종 작가들의 초대형 전시회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

바르비종파란 '1830년파' 또는 '퐁텐블로파'라고도 한다. 주요한 화가로는 '바르비종의 일곱 별'이라 불리는 밀레, 루소, 코로, 뒤프레, 디아즈, 트루아용, 도비니 등이며, 여기에 쿠르베 등도 가끔 참가하였다.

자연을 조금도 미화하거나 이상화하지 않고 깊은 애정을 갖고 자연에 동화되어 자연이 갖는 미묘한 빛, 맑은 공기가 가득찬 정취 있는 풍경화로 자연주의를 표현하고 후에 인상주의 성립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19세기 초 프랑스 바르비종파 화가들 31명의 작품 106점이 이번 6월 한국을 찾는다. 이번 전시는 미술사적 의의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양에도 대단히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본 전시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밀레의 석판, 동판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서양미술 탄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거장들의 땀과 열정을 쏟았던 흔적, 그리고 그들이 바라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여 있는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느껴볼 수 있는 좋은 전시가 될 것이다.

6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단, 6월 27일/7월 25일 전시 없음)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관람요금 : 일반 9,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

문의 : 02-368-1616(www.barbizon.co.kr)

이중섭 드로잉 : 그리움의 편린들展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 격동의 세월 속에서 살고 간 이중섭의 삶은 그 자체가 예술이었다. 격동의 세월 속에 '그린다'는 행위 자체를 생의 유일한 낙으로 삼았던 이중섭의 작품에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두 아들에 대한 그리움, 순진 무구한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뿐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불행 또한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중섭은 40년의 짧은 생애 동안 수백여 점에 달하는 많은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그 중에는 연필 소묘, 엽서화, 은지화와 편지화, 스케치화, 삽화 등 300여 점이 포함되어 있다.

삼성미술관 리움에서는 이러한 이중섭의 예술적 독창성과 특이성이 담긴 드로잉 작품 100여 점을 전시한다.

연인에게 보낸 엽서를 뛰어난 예술적 형식의



▲ 트루아용의 "목초지의 가축들"



▲ 이중섭의 물고기와 노는 아이들

계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족들에게 편지와 함께 보낸 편지화에는 잉크, 크레파스, 수채와 유채를 폭넓게 활용하였다. 또한 그의 작품 안에는 상실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어린이와 같이 순진무구한 세계, 아이들과 닭과 새와 새가 하나가 되는 이상세계를 그리는 한편, 시대의 불행과 아픔, 우리 민족의 비극을 소와 닭과 새 등을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중섭이라는 우리 나라의 천재화가에 대한 가족애와 그리움, 그의 독창적 화풍의 세계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5월 19일부터 8월 28까지(월요일 휴무)

삼성미술관 Leeum에서

관람요금 : 일반 5,000원, 초중고생 3,000원

(예약 필수, 단 목요일은 무예약 개관)

문의 : 02-2014-6901(www.leeum.org)

“미술가의 눈으로 바라 본 서울”展

광화문 이순신 동상 바로 밑 지하보도에 자리잡은 세종문화회관 광화랑에서는 미술가의 눈으로 바라본 서울展을 개최한다.

이번에 개관한 세종문화회관 광화랑이 올 한해 내놓은 프로젝트는 ‘서울과 청계천’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동원된 작가들은 바로 김을과 김태현, 그리고 이부록이다.

50대의 김을은 금속공예라는 명예를 끌어안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목수일을 하며 생활하는 작가로 유명하다. 그의 기존 작품을 미루어 짐

될 뿐이다.

김태현은 40대의 작가로 민중미술로 출발한 자신의 일기 같은 1호짜리 캔버스와 화첩작업의 화단에서 눈길을 받고 있다. 조용한 방법론의 삶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작가는 그 조용한 방법론과는 다르게 힘있고 울림이 큰 목소리와 생각 소유자로도 정평이 나있다. 그의 날카로운 서 타이밍을 기대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부록은 30대의 젊음을 표상한다. 그의 작업은 은유지만 때론 직설화법보다 더 강렬하다. 이번 전시로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풍문을 끌어안고 있듯이 그의 작업은 에세이 기보단 주장하는 글에 가깝다. 날카로운 시선 영상과 켄티큐탈(홀로그래픽의 작업), 그림문 등 다양한 매체로 지루하거나 식상하지 않게 아내고 있다. 젊음이기에 가능할 서울에 대한 설화법이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담겨질지 못 궁극하다.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 3명의 눈으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확연히 다를 것이다. 당신이 보는 우리라 수도 서울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번 전시로 우리는 서울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5)

6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광화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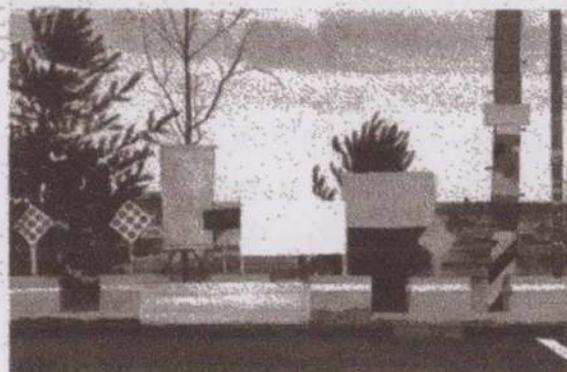
관람요금 : 무료

문의 : 02-399-1111(www.sejongpac.or.kr)

객원기자 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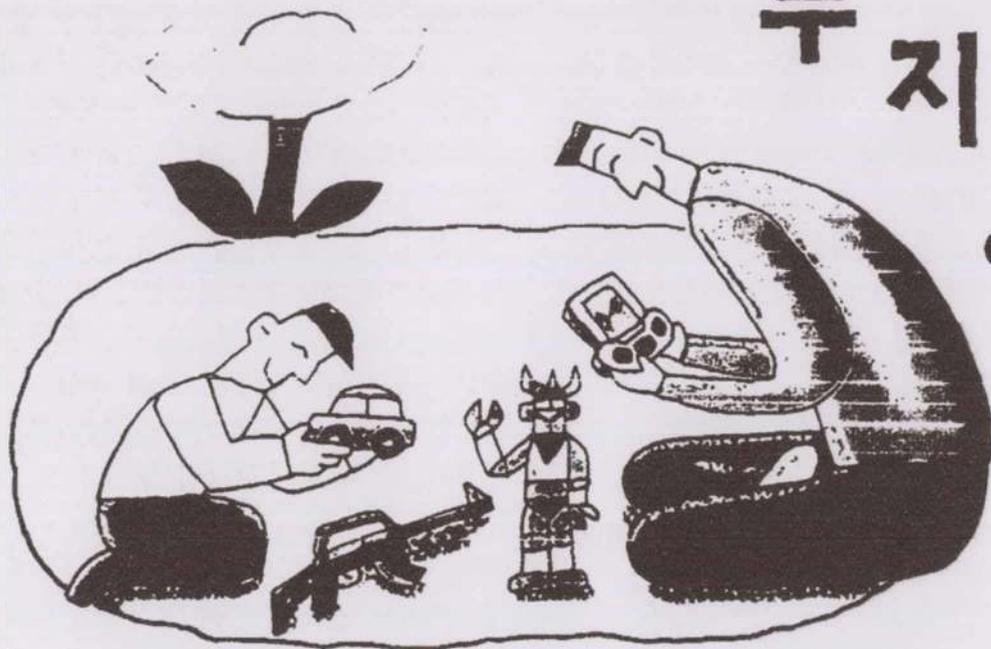


▲ 이중섭의 소



▲ 미술가의 눈으로 바라 본 서울 김태현의 작품

철부지 예찬



강철처럼 단단히 박힌 나이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고,
 마음껏 생각하며, 거침없이 행동하는 유연한 사고의 소유자!
 계절의 변화 같은 고정불변의 법칙쯤 가볍게 무시하고
 나만의 취향과 방식으로 즐기는, 가식 없는 인생의 향유자!

철을 알지 못하는 사람

“철부지”란 단어에서 ‘철’이란 사리를 가릴 줄 아는 힘을 뜻하는 말이다. 모두 다 아는 이런 국어사전 속 심심한 해석 말고, “철”이란 글자가 가진 다른 뜻으로 철부지란 단어를 해석해 보자. 뭔가 새롭고 재미있는 해석이 나올 것 같다.

철부지란 세상을 헤쳐 나갈 강철 같은 정신력, 즉 정신적 철분이 부족한 마음의 빈혈상태, 혹은 계절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는 눈치코치 지수제로 상태! 어떨까? 이 해석에 동의하는가?

일요일 오후, 방 안 풍경...

인형들이 가득한 침대 한가운데서 게으름을

만끽하고 있는 (말 그대로) 말만한 처자! 방바닥에는 보석을 박은 듯 커다란 눈망울을 반짝이는 예쁜 소녀 그림들이 잔뜩 그려진 만화책이 여기저기 널려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기어아 한 마디 하시고야 만다.

“나이가 몇인데 그 모양이니! 이제 그만 철 좀 들어라~”

한쪽 귀로 가볍게 흘려버리고 TV를 켜다.

귀를 때리는 익숙한 카피 문구!

<콩은 콩답게 자라고, 아이는 아이답게 자랐으면 합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자란다... 음~ 그래. 좋은 말이다.

그런데 잠깐!?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

콩은 다 자라도 콩이지만, 아이는 다 자라면 어른이 될 텐데, '어른답게'가 아니라 아이답게 자라라니, 그렇다면 "어른 아이"가 되란 말인가?

어른 아이, 아이 어른

요즘 세상에는 이 광고 카피의 바람대로 철부지 어른 아이들이 넘쳐 난다.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키드와 어덜트의 합성어, 키덜트 족!

한 마디로 철부지 어른이란 뜻이다.

어린 시절의 향수와 동심의 세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철부지들 덕에 귀여운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옷들이 유행하는가 하면 고가의 게임기가 불티나듯 팔려나간다.

이렇게 2~30대 키덜트 족이 어린 시절의 추억 속을 헤맬 동안, 우리 아이들의 정신 연령은 "어른 아이"의 그것을 훌쩍 앞질러 나가고 말았다. 고등학생들은 두발과 교복 자율화를 외친다.

물론 옛날에도 두발이나 교복 자율화는 모든 학생들의 바람이자 큰 꿈이었지만, 요즘 아이들처럼 조직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촛불집회를 벌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초등학생들은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선생님의 일기 검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요즘 애들, 무섭다. 정말 카피 문구 그대로~ 아이답게 좀 커 줘으면 좋겠다.

겉과 속이 똑같은 아이들!

어린아이는 이면을 보지 않는다. 보이는 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마음속에서 좋으면 좋다고 하고, 마음속에서 싫으면 싫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답다는 말은 아마 순수하고 솔직하다는 뜻일 것이다.

키덜트 족의 아이다움이란 것도 바로 이런 태도가 아닐까?

그들은 좋아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소유해서, 당당하게 향유한다. 또한, 그들은 점잔을 빼며 어른대접 받기보다는 유치

하다고 비웃음 당해도 자신만의 세계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맛보길 원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철이 덜 든 사람, 즉 철부지란 단어의 뜻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풀이해 보자.

철부지란,

강철처럼 단단히 박힌 나이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고, 마음껏 생각하며, 거침없이 행동하는 유연한 사고의 소유자!

계절의 변화 같은 고정불변의 법칙쯤 가볍게 무시하고 나만의 취향과 방식으로 즐기는, 가식 없는 인생의 향유자!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는 주변의 질타, 유치하다며 비웃는 웃음소리를 못들은 척 흘려 넘기기만 하면 당신도 멋진 철부지가 될 수 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10년만 젊었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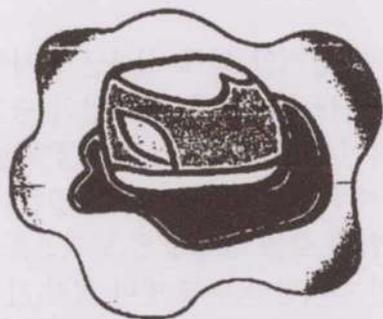
이런 비겁한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라?

유치원생이 연애를 하든, 서른 넘은 어른이 인형놀이를 하든,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이라면 그 걸로 된 것 아니겠는가? ⊕

방송작가 모은 설

대위 이 동 혁



킹덤 오브 헤븐

(Kingdom of Heaven)



압도적인 스펙터클 속의 질문, “지상에 천국은 있는가?”

〈에어리언〉, 〈블레이드 러너〉, 〈글래디에이터〉의 명장 리들리 스콧 감독과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레골라스’로 스타덤에 오른 올랜도 블룸의 만남은 성공적이다. 올랜도 블룸이 최초의 선택이건 차선의 선택이건 간에 그는 결국 〈킹덤 오브 헤븐〉에서 리들리 스콧이 원했던 바를 당당하게 성취해낸다. 거기엔 〈글래디에이터〉와 〈킹덤 오브 헤븐〉 사이에 놓여진 경계선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글래디에이터〉의 막시무스(러셀 크로)는 처음부터 명망있고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반대로 〈킹덤 오브 헤븐〉의 발리안(올랜도 블룸)은 애초에 미천한 대장장이였다 졸지에 기사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노예가 된 막시무스는 복수를 위해 계속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는 반면, 발리안은 영웅이 되고자 했던 꿈이 계속 깨져가면서 오히려 그 존재를 감추려 애쓴다. 막시무스와 비교하자면 발리안은 영화 속에서 질주하는 주인공이보다 관조적인 관찰자의 성격이 짙다. 그리고 그것은 〈킹덤 오브 헤븐〉에서 리들리 스콧이 꿈꿨던 변화와 딱 들어맞는다.

대장장이 발리안 앞에 십자군 기사인 고프리 리암 니슨)가 찾아온다. 발리안의 숨겨진 아버지라고 밝힌 고프리는 십자군 전쟁에 동참,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자고 말한다. 우여곡절 끝에 함께 길을 떠나게 된 발리안은 고프리가 죽기 직전 수여한 작위를 받아 정식 기사가 되어 예루살렘의 국왕 볼드윈 4세(에드워드 노턴)에

대한 충성을 서약한다. 이후 발리안은 국왕의 신임을 한몸에 받게 되고, 왕의 동생인 시빌라 공주(에바 그린)와 격정적인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그녀는 이슬람권과의 전쟁에 감증을 느끼는, 교회 기사단의 우두머리 기드 루지앵(마틴 초카시)과 정략 결혼을 한 상태다. 평소 고프리를 앙숙으로 여겨왔던 기드 루지앵은 볼드윈 4세가 죽고 권력을 쥐게 되자, 예상대로 살라딘(가산 마수드)이 이끄는 아랍권을 자극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키고 만다.

‘하늘의 왕국’, 무경계적 회색 시대에 대한 추억

최근 할리우드의 고대 서사극을 보면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은근히 부러워진다. 구척(九尺) 영웅들의 눈부신 활약이나 숭고한 시대 정신 때문이 아니다.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시대에 잠복해 있었던 ‘가치 체계의 불명료성’ 때문이다. 〈반지의 제왕〉, 〈트로이〉, 〈알렉산더〉 등의 서사 드라마는 모호함이 가득찬 흐리멍텅함의 시대를 재현한다. 지금처럼 가치와 믿음의 체계가 명쾌하게 갈리지 않았던 그 시기에는 지켜야 할 정체성과 신앙만큼이나 포용과 배려의 미덕을 중히 여겼다. 삶과 죽음, 남자와 여자, 동양과 서양, 적과 아군의 경계가 흐려진 회색주의는 할리우드 신(新) 서사극에서 주목할 만한 징후다. 〈킹덤 오브 헤븐〉(이하 〈킹덤〉)은 이 모호성의 시대를 관통하는 포용 편익의 이야기다. 〈킹덤〉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십자군 원정가는 종교와 문화의 첨예한 갈등으로 격화할 살육 전쟁이 발발하는 한편, 상이한 문화가 어우러지며



공존하던 시대다. <킹덤>의 무대가 되는 예루살렘은 적군으로 만났으나 서로의 문명을 이해하고 심지어 동화되기까지 하는 사람들의 이국적 매혹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이 영화의 제목이 암시하는 바가 있다면 바로 이 무경계적 회색의 시대에 대한 추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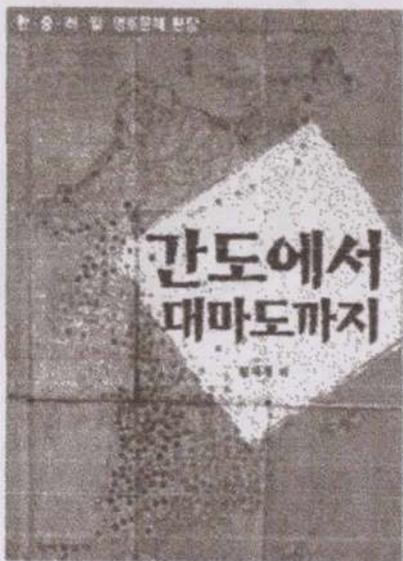
리들리 스콧을 매혹시킨 건 피흘림으로 존속되는 아이러니의 도시 예루살렘에 대한 공간적 메타포만이 아니었다. 1천 년이 지난 후에도 끝나지 않는 그곳의 분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할리우드의 정치적인 이상 열기도 아니었다. <킹덤>은 30년 동안 감독 리들리 스콧이 꿈꿨고 작가 윌리엄 모나한이 평생 동안 간직해온 '기사도 프로젝트'의 하나였다. 모나한은 죽어가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유언, "세상 전체를 얻는다한들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를 좌우명 삼아 살아왔다. 고프리가 발리안에게 유언을 남기는 순간은 모나한의 실제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는 장면이다. 스콧은 "기사는 그 시대의 카우보이다. 그들은 신의와 정당성, 명예를 지키기 위해 기사도에 의거해 움직인다"고 말한다. <킹덤>은 신의와 명예를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몰양심의 시대에, 찬란했던 기사도 정신의 가치를 환기하려 한다. 엄격한 정신적 순결성은 주인공 발리안의 정신과 행위를 지배하는 원칙이다. 신세계를 찾아 떠나는 발리안의 모험은 아내를 모욕한 이를 죽인 복수에 대한 속죄, 미움과 증오로 굴러가는 세상을 정화하기 위한 오디세이다. 종교적 신념과 휴머니즘 사이에서 번민하는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어떤 시효성이 있는가? 리들리 스콧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 한다. <킹덤>은 그 답을 인류 역사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애에서 찾는다.

한편으로 지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뻘하고 심심한 결론이다. 최후의 순간까지 이 영화가 보여 주는 것은 영화 속 이슬람 지도자 살라딘은 악한이 아니라는 것, 악한들은 전쟁으로라도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려는 극단주의자들이라는 사실뿐이다.

리들리 스콧, 트렌드의 재창조자

리들리 스콧의 탁월함은 지나간 유행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창조해내는 흥내낼 수 없는 재능에서 나온다. 그는 사멸해가는 유행 장르에 새로운 외피를 입히거나 그것을 뒤집는 데 남다른 장기를 지닌 감독이다. 꿈과 희망을 복돋우는 SF 장르들이 횡행할 때 폭탄처럼 등장한 SF 디스토피아 <블레이드 러너>가 그러했고, 미지의 타자로부터 기원하는 공포를 보여 준 괴물 영화 <에이리언>,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버디무비의 고질적 성차를 극복한 <델마와 루이스>, 로맨틱 코미디의 분열증적 변주인 <매치스틱 맨>도 빼놓을 수 없다. 뿐인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밴드 오브 브라더스> 등 리얼리티 전쟁 드라마의 퇴조기에 <블랙 호크 다운>이라는 문제작을 내놓더니, 이제 <킹덤>을 통해 할리우드의 새로운 트렌드인 서사극 장르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킹덤 오브 헤븐>의 전투 장면은 압도적이다. 이 장면들은 마치 <글래디에이터>가 <블랙 호크 다운>을 만난 듯한 현실감을 더한다. <글래디에이터> 이후 할리우드 서사극의 주된 기준점이 된 것 같은 '피비린내 나는 실감나는 전투 장면'도 폭발적이다. 약 40분 동안 계속되는 라스트 신에는 <글래디에이터> 이후 관객들이 기대했던 그것들이 집약되어 있다. ⊕



간도에서 대마도까지

- 임채청 외 10인 지음 -

이 책은 우리가 20세기 들어 상실한 영토들,
그리고 앞으로 분쟁에 휩싸일 위험이 있는
영토들의 백과사전

최근 들어 다소 소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도 보이지만, 분노한 국민들이 공공연히
'일본과의 국교단절' 까지 언급했을 정도로 연초
의 독도문제는 심각했다. 게다가 작년에는 중국
의 '동북공정'이란 프로젝트가 고구려를 자기네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며 등장해 온 국민이 황당
함에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영토들의 백과사전

이 책은 이처럼 우리 나라와 이웃나라들 간의
주요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영토분쟁을 다루고
있다. '간도에서 대마도까지'라는 제목에 걸맞게
독도와 간도뿐만이 아닌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눈독도'나 '대륙봉' 등 한국 최북단에서부터 최
남단까지 영토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총망
라하고 있다. 우리가 20세기 들어 **상실한 영토**
들, 그리고 앞으로 분쟁에 휩싸일 위험이 있는
영토들의 백과사전인 셈이다.

책에서 인상 깊은 것은 '간도 및 북방 영토편'
에서 현지 주민들 및 지역 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어낸 자료들이다. 간도의 경우 영유권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토분강의 위치에 대한
역사적, 지질학적 조사가 상세히 실려 있으며,
북한과 중국간에 있었던 국경을 둘러싼 총격전
등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에피소드들도 기

술되어 있다.

아쉬운 점이라면 간도 및 북방영토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앞서 언급한 현지주민 및
학자들과의 인터뷰 및 답사에 머물러 있고, 중국
이나 북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나 양국간 협
약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상 자세한 정보공개는 기대할 수
없으니 이 책을 엮은 동아일보 취재팀의 잘못은
아니다.

간도수복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우리의 상식

그렇지만 간도수복에 있어 더 큰 장애요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다. 심지어 헌법에조
차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
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어, 북방영토에 대한 국민
들의 **인식**은 독도에 대한 인식에 비해 상당히 뒤
떨어져 있다.

국가의 영토라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인 이상
사람이 바꿀 수도 있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에 대한 주인
의식이고, 그런 의식이 국민들 전반에 퍼지게 되
면 언젠가 이 잃어버린 옛 영토를 찾게 되는 날
이 올지도 모른다. Ⓛ

서명 : 시나리오 작가 박 동 인

시원한 빗줄기와 함께하는

6월에

나무들이 푸러운 여름,
시원한 그늘을 만들기 위해
눈부시게 푸른 잎들을 하늘로 펼치고,
아카시아 꽃향기가 혼풍에 실려
진한 여름을 남기는...
그윽한 솔향과 함께 흘날리는
노오란 송홧가루가 마음을 설레게 하는
풍요의 계절 6월.



아누스의 계절, 6월

6월은 봄의 끝자락에서 시작하여 하순경부터는 여름의 무더위와 함께 많은 재산과 인명에 피해를 주는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2005년 초부터 한반도는 강추위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으며, 4월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여 강릉의 낙산사가 소실되는 등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이렇듯 많은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에는 특히 기상이 변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겠다.

우리 나라 연 강수량의 약 60%인 700mm가 여름(6, 7, 8월)에 내리고, 그로인해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생기기 시작한다. 집중호우는 하루 강수량이 연평균 강수량의 8%(약 100mm) 이상 내리는 것을 말하며,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20회 정도 발생하는데 월별로는 6월 3회, 7월 7회, 8월 10회로, 6월말 경부터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8월에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6월 초 이전에는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 배수로 및 토사유실

우려가 있는 곳은 물론, 지반이 약한 도로도 다시 정비해야 한다. 또한 뇌우의 피해를 받기 쉬운 전신주, 변압기, 변전소 등을 점검하고 취약지역을 보강하는 등 모든 사전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하순으로 갈수록 악기상과 돌변기상이 자주 발생하므로 항공작전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장병들은 여름철 기온상승과 습도증가로 인해 음식이 변질되기 쉬운 시기이니 열사병, 식중독 및 개인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6월, 우리의 산하는 눈부시게 푸르고 만물이 약동하는 숨소리를 주위에서 쉽게 느낄 수 있다. 현란한 꽃들의 향연에 취해 지저귀는 새소리도 잊을 듯하다. 농가에서는 보리수확과 모내기가 연이어서 매우 바쁜 때이기도 하다. 절기로는 보리를 먹게 되고 벳모를 심는다는 망종(芒種)이 5일이며, 하지(夏至)가 21일이다.

더워지는 날씨와 많은 비로 6월은 장병 모두가 지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한여름 본격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이기도 하다. Ⓡ

독자의 소리

5월호에 실린 「헤이리」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꼭 한번 찾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여유로운 그곳의 정취와 신선함을 느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실아가면서 소중한 마음을 담고 싱그러운 향기로 기억되는 책으로 남아주세요.

전남 순천시 인제동 박복심

화제의 주인공 '김애정·윤정 하사, 공군 최초 자매 동시 임관' 기사 매우 유익하게 잘 읽었습니다. 여군의 활약상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즐겁게 잘 읽었습니다.

부산시 진구 병천동 권영록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청정 가교



「공군」을 읽고 감동을 받아 몇 자 적어 봅니다. 항상 잔잔한 감동과 함께 공군들의 여러 가지 활약상을 보면 역시 「공군」 가족이 되길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삶의 동반자로서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한 역할을 제시해 주는 믿음과 애정이 가는 책입니다. 이 책 한 권에서 울고, 웃고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호가 벌써 기다려집니다.

전남 여수시 소호동 송희

공군지의 하나같이 밝은 화보를 보니 탄탄대로의 공군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군」지의 시선을 잡는 저 밝은 표지 모습 좀 보세요. 너무 마음에 들었구요. 내용 또한 이해보다는 깨우침을 주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어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좋았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산막동 김규섭

공군 부대에 수화 동아리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계획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는 취지가 신선했고,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심재호

복잡한 요즘 세상, 고소고발이 빈번해지는 세대에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은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상식이었습니다.

대구시 중구 남산 2동 김수연

「효도와 결혼생활」은 5월 가정의 달에 잘 어울리는 기사였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노경희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

3 2 1 - 9 2 9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6.1~2006.5.31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 □ □ - □ □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신 :

대위 이동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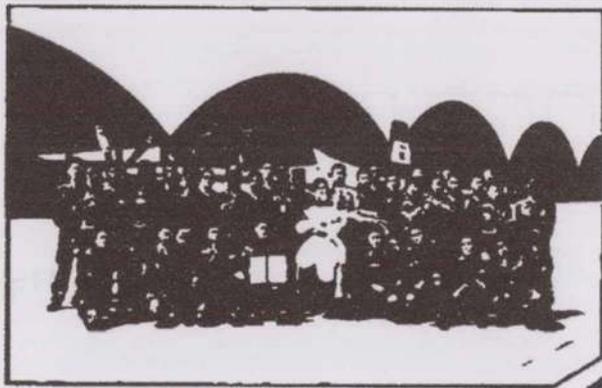
공군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6231~7, 02) 506-6231~7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들을 적어주세요.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문제는 61쪽에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들을 적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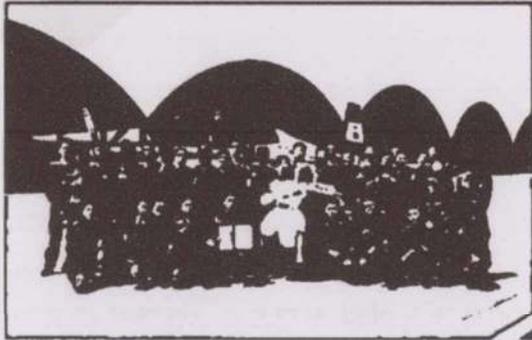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문제는 61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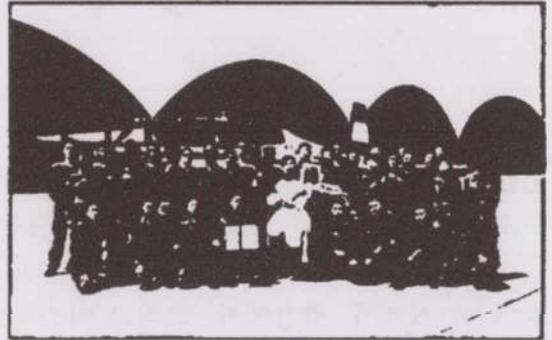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호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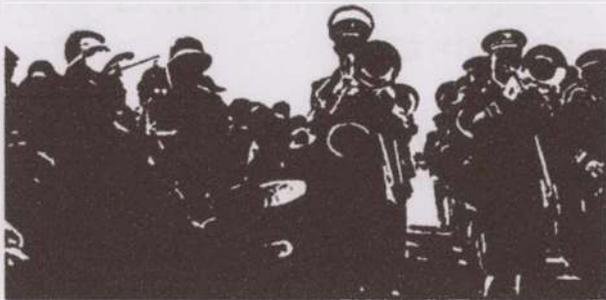


• 사진설명 : 제3훈련비행단 여군 최초 400회 무결함 비행지원 달성 축하 기념사진



▶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 보세요.

▶ 지난호 정답



▶ 지난호 당첨자

- 대전시 동구 천동 전미경
-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최왕선
- 대구시 중구 남산 2동 김수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변찬홍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심재호
- 광주시 광산구 산막동 김규섭
- 전남 여수시 소호동 송 희
-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노경희
- 부산시 진구 범천동 권영록
- 전남 순천시 인제동 박복심

「공군」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호에도 많은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서도 엽서를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내실 곳 : 우편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자

마 감 일 : 6월 20일까지

오! 필승 코리아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준장 안 정 훈

영원히 기억될 월드컵 신화

3년 전인 2002년 6월, 4,800만 한국인들은 목이 터져라 “오, 필승 코리아!”를 외쳤다. 경기장에서, 집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아스팔트 위에서도 보이지 않는 신명에 끌려 “대한민국”을 외치고 박수를 쳤다. 1천만명의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모르는 사람들과도 손뼉을 마주쳤고, 골이 터질 때는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태극기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었다. 지축을 뒤흔들 듯 우렁찼던 붉은 악마의 함성은 한민족의 용기와 자신감이었다. 5천년 역사에서 이처럼 모두가 한마음이 되고 조국을 자랑스러워 했던 적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봄과 마음에 전율처럼 감동이 흐른다.

12번째 선수, 붉은 악마

2002 월드컵의 신화는 태극전사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지만, 12번째 선수였던 붉은 악마의 뜨거운 열정과 응원이 보태졌기에 가능했었다. 1980년대 박종환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팀이 청소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4강에 오르자 전세계의 매스컴들이 떠들썩했다.

붉은 유니폼을 입은 작은 체구의 한국인들이 장대 같은 외국선수들을 제치고 푸른 그라운드를 누비는 모습이 마치 붉은 악마처럼 보였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때부터 한국선수와 응원단은 ‘붉은 악마’로 불리기 시작했다.

축구가 이처럼 축제로 끝나기만 한 것은 아니다. 36년 전 온두라스와 엘살바드로의 월드컵 축구 예선전이 과열되면서 전쟁으로 이어졌다. 100시간 동안의 전쟁으로 3천명이 죽고 1만 2천명이 부상했으며 15만명이 집을 잃었다. 민주적 질서를 자랑하는 유럽에서도 홀리건들이 종종 난동을 부리곤 한다.

반면에 우리의 붉은 악마들은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도 질서를 지켰고 뒤끝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성숙된 문화시민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축구의 승리보다 몇 배 부러운 모습으로 전 세계인에게 각인되었다.

6월은 희망과 용기의 달

우리의 현대사에서 6월은 뜨거운 달로 기록되어 있다. 6·25의 비극, 6·15 남북 정상회담, 6·3 사태, 6·10 항쟁, 6·29 선언, 그리고 최초의 남북장성급 군사회담(2004.6.4)까지 유독 뜨거운 이슈들이 몰려있다.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일도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

하지만 이제 도전과 희망, 그리고 화합과 용기의 상징이 된 월드컵의 신화가 6월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미래지향적이고 자신감 충만한 슬로건이 다시 내걸려야 할 때다. 태극전사와 붉은 악마는 우리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 쉽게 좌절해서는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6월은 이제 희망과 용기의 달이다. Ⓡ

알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군인들의 종합교양지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수기나 문예작, 사진작품, 기타 일상생활에서 느낀
 진솔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 모집분야 :
- 사진 : 앞뒷면 표지, 공군은 지금
 - 원고 : 화제의 공군인, 부대/부서탐방, 테마가 있는 나들이(기행문),
 동아리 마당, 장병문예(시·소설·수필), 독자마당 등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군가족 및 예비역 원고 환영

○ 응모기간 : 연중 계속

- 분 량 :
- 사진 : 4×6 이상 혹은 디지털이미지(JPG : 500Kb 이상)
 - 원고 : 원고지 10매 내외(A4용지 1.5 ~ 2매), 관련 이미지
 * 간단한 약력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명기

보낼곳

충청남도 계룡시 남신면 부남리 서서함 501-310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우편번호 321-929)
 E-mail : (인터넷) afzine@airforce.mil.kr, (인트라넷) minjkang@af.mil

문 의 02)506-6233, 호)6233